

농업·농촌경제동향

2015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yslee@krei.re.kr

이상민 smlee@krei.re.kr

박한울 phu87@krei.re.kr

박지원 jione1105@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262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4
3. 소비	5
4. 물가	8
5. 금융·환율	14

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 물가	17
2. 농림어업 취업자	21
3. 농축산물 수출입	22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28
2. 엽근채소	33
3. 양념채소	41
4. 과일	50
5. 과채	56
6. 축산	65

특별주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75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	88
최근 소비자의 과일 구매행태 분석과 시사점	102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15년 경제성장률은 메르스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는데 그침.
- 2015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1.5% 증가하여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 건설투자는 기저효과와 함께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해 전분기보다 6.1% 감소함.
- 2015년 4/4분기 취업자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용직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하였음.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 2015년 12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카드 국내 승인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은 감소함. 소비심리지수는 전월과 전년 동월에 비해 2.0% 하락함.
- 2015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1.1% 상승하였으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0.7% 상승하는데 그침. 한편,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1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신선 채소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보다 2.5% 상승함.
-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문 위주의 통화량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2015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에 비해 0.9%, 광의통화(M2)는 0.4% 증가함.
- 2015년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 국제유가 약세, 중국 등 신흥국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CD유통수익률(91일)은 소폭 상승함.
- 2015년 4/4분기 환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여 원화가치는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2015년 연평균 환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여 원화가치는 달러 및 엔화대비 하락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5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분기보다 5.0% 상승함.
 - 부류별로는 곡물가격지수가 미곡, 서류 등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8.0%, 3.7% 하락함. 채소류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0.6%, 전분기에 비해서는 9.6% 상승함. 이는 배추 등의 엽채류와 오이, 호박을 포함한 다수의 과채류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한편, 사과와 감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여 과실류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함. 축산물은 한우 및 육우가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전년 동기보다 8.8% 상승함.
- 2015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0.9%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5%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3%, 전분기보다 1.0% 하락한 반면,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 노동임금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4.6%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하고 산출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11.0으로 전년에 비해 2.5% 하락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0.3% 하락함.
- 2015년 4/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101.7로 농가경영조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전년과 비교했을 때 농업투입재가격지수의 하락률보다 농가판매가격지수의 하락률이 더 작아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0% 상승함. 전분기에 비해서는 농업투입재가격지수가 하락하였으나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채소 및 과실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업경영조건지수가 전분기보다 5.4% 상승함.
- 2015년 4/4분기 계절조정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9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1%, 전분기에 비해 3.0% 감소함. 일반적으로 4분기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다른 해에 비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림어업부문 취업 상황이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 및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 7.9% 감소함. 부류별로 살펴보면 임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8% 증가한 반면, 농산물과 축산물 수출액은 각각 2.3%, 3.3% 감소함. 수입액의 감소는 모든 부류에서 나타나 임산물은 1.1%, 농산물은 9.1% 감소함. 축산물의 경우 특히 낙농품과 가금육류의 수입액 감소가 커 전년에 비해 11.8%의 수입액 감소를 보임.

Ⅲ. 특별주제 시사점

1.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말 연구원의 현지통신원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의식변화에 기초한 연구수요 발굴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 조사결과, 농업·농촌 분야의 투자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상승하여 도시민 50.7%, 농업인 73.8%는 농업·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각 10.9%, 3.1%에 그쳐 높은 지지도를 보였음. 또, 농업인 세제 혜택에 대해서 도시민 10명 중 6명이 동의해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긍정인식이 증가했으며,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도 도시민 61.9%가 동의하여 전년보다 7.7%p 상승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필요성 인식과 지지도가 상승함.
-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도 증가하여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7.0%로 전년보다 8.0%p 증가했으며, 귀농·귀촌 이유는 생계 수단보다 건강과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귀농보다 귀촌을 원하는 비중이 3배 정도 더 많은 점이 이를 뒷받침함. 귀농·귀촌의 효과나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농업인보다 도시민의 긍정 비율이 높았음.
- 하지만, ‘수입농산물에 거부감이 없다’는 도시민이 40%에 육박하고,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되면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 하겠다는 국산 구매 충성도는 2009년 37.0%에서 2015년 21.0%로 떨어지는 등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와 행복도는 최근 2~3년간 정체 상태에 있으며, 재정과 관련한 지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소득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반면에, 농촌생활 만족도는 불만족보다 16.4%p 높은 37.4%로 조사됨.
- 농업정책 수요와 예산 배분에 대해서 농업인은 FTA에 따른 피해보상과 소득안정을, 도시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해 농업인과 도시민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음.

2.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

- 우리나라 도계 마릿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도계 마릿수는 사상 최대 수준인 9억 6,696만 마리였음. 이러한 증가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어 2016년 1~8월 도계 마릿수는 2015년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 결과 육계 산지가 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닭고기 공급 과잉의 주된 원인은 계열 업체의 경쟁 심화, 닭고기 소비 정체, 종계 공급 부족을 우려한 계열 업체들의 단기간 종계 입식 급증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대규모 닭고기 계열업체 신규진입이 계속되면서 업체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해짐. 그 결과 2011~2015년 기간 동안 주요 계열업체의 도계 마릿수는 연평균 7.0% 증가하고 닭고기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남. 반면 닭고기 소비량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보여 업계의 닭고기 냉동재고도 증가하고 있음.
 - 금년 하반기의 종계 부족 가능성을 우려한 업체들의 종계 확보 경쟁으로 인해 금년 종계 입식 마릿수는 평년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경쟁 심화로 인해 계열업체의 영업이익 급감과 중소업체 폐업이 발생함. 또한 위탁 사육농가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됨.
 - 2015년 3분기 기준 주요 상장 계열업체 영업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함.
 - 농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위탁수수료 인하, 육계 비품 처리 증가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비 증가 부담을 모두 농가에게 귀속시킨다는 불만이 조사됨.
-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발생한 닭고기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위탁사육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함.
 - 계열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통한 입식 및 사육규모 감축과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발생 가능한 위탁 사육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

3. 최근 소비자의 과일 구매행태 분석과 시사점

- 최근 소비자의 과일 구매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크기의 품종을 선택해야 함. 소비자는 가정 소비용으로 사과와 배를 구입할 경우 ‘중·소과’크기를 선호하고 있어 가정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과 품종의 재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단감은 현재와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큰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좀 더 큰 대과 품종의 재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둘째, 고당도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함. 과일 구입 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품질은 당도(배 69%, 단감 61%, 복숭아 38%, 감귤 26%)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비자는 현재보다 더욱 단맛의 단감을 선호하며, 복숭아는 망고 등과 같은 수입과일과 경쟁하기 위해 당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감귤은 같은 크기인데도 당도 등 맛 차이가 크다는 것이 소비 확대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향후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여 고당도 품종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할 것임.
- 셋째, 신품종 갱신 노력이 필요함. 수입포도의 영향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씨 없는 포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매년 수입포도 비중이 늘면서 수입포도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국내산 포도가 수입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 및 안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여 ‘씨 없는 포도(예를 들어 씨 없는 청포도 샤인마스켓)’와 같은 신품종 갱신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저장기간 연장이 필요함. 감귤 소비는 대체로 꾸준하며 복숭아 소비도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오렌지와 망고 등과 같은 수입과일이 늘면서 향후 감귤과 복숭아 등의 소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소비자는 감귤과 복숭아의 소비 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쉽게 물러져 보관기간이 길지 않음(감귤 56%, 복숭아 39%)’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감귤과 복숭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품종 및 기술 개발이 요구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

- 2015년 경제성장률은 2.6%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2012년 (2.3%)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2014년 1/4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3/4분기에는 소비확대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4/4분기 수준까지 회복됨.
 - 그러나 2015년 4/4분기에 부동산 경기악화로 건설투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하는데 그침.
 - 2015년 연간 GDP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면서 저성장을 보인 이유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 국제유가 급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는 전분기 증가율이 높았던 기저효과와 함께 4분기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2015년 4/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기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함.
 - 2015년 4/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부진하여 전기 대비 6.1%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함.
 -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감소하였으나 운송장비가 늘어 전기 대비 0.9% 증가하고 전년 동기대비로는 3.5%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박한울 연구원(phu87@krei.re.kr)이 작성하였음.

- 2015년 4/4분기 총수출은 화학제품, 휴대폰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함.
- 총수입은 석유 및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늘어 전기 대비 2.8%,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p					2015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 D P 성장률	3.3	3.9	3.4	3.3	2.7	2.6	2.5	2.2	2.7	3.0 (0.6)
최종소비지출	2.0	2.7	1.7	2.0	1.8	2.4	1.9	2.1	2.3	3.4 (1.5)
(민 간)	1.8	2.6	1.7	1.5	1.4	2.2	1.6	1.7	2.1	3.2 (1.5)
총고정자본형성	3.1	5.8	3.3	3.3	0.7	3.7	2.2	2.4	5.0	5.0 (-2.8)
(건 설)	1.0	4.1	0.2	2.3	-1.5	3.7	0.4	1.4	5.5	7.4 (-6.1)
(설 비)	5.8	7.2	7.7	4.2	4.2	5.3	5.8	5.0	6.7	3.5 (0.9)
총 수 출	2.8	4.2	3.4	2.2	1.4	0.4	0.2	-0.9	0.3	1.9 (2.1)
총 수 입	2.1	3.2	2.9	2.3	0.1	3.0	1.8	1.5	3.2	5.5 (2.8)

주 1. 2014^p, 2015^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는 전분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은 감소하였음.
 - 농림어업은 전기 대비(계절조정) 1.4%, 전년 동기대비(원계열) 4.5% 감소함.
 - 제조업은 석유 및 화학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늘어나면서 전기 대비 0.8%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2010년 연쇄가격 기준)

단위: %

	2014					2015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농 립 어 업	2.6	5.6	3.3	1.4	1.3	-1.6	6.3	-4.7	-0.7	-4.5 (-1.4)
제 조 업	3.9	5.1	5.1	3.3	2.4	1.4	0.7	0.8	1.7	2.3 (0.6)
서 비 스 업	3.2	3.6	2.7	3.2	3.1	2.9	3.2	2.9	2.7	2.7 (0.8)
(도소매 및 음식숙박)	2.5	4.0	2.0	2.5	1.7	2.1	1.8	1.9	1.4	3.2 (2.1)
(금융 및 보험업)	5.7	5.2	5.6	5.6	6.5	6.7	7.2	7.4	6.5	5.7 (-0.3)
(부동산 및 임대)	1.8	1.6	1.8	2.1	1.7	1.7	1.8	1.8	1.6	1.5 (0.0)
(보건 및 사회복지)	7.4	7.8	7.2	7.0	7.9	5.8	7.4	4.5	4.8	6.4 (3.9)

주 1. 2015^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원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는 계절조정계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16년 경제(GDP)성장률은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상반 3.1% → 하반 2.9%)됨.
 - 내수부문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수요 개선이 늦어지면서 경기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기여도가 수출기여도를 상회할 전망이다.
- 민간소비는 가계부문의 실질구매력 개선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이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주택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 투자 심리 위축은 건설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 있음.
- 상품 수출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2%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대비)

	2015			2016 ^{e)}			2017 ^{e)}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2.3	2.9	2.6	3.1	2.9	3.0	3.2
민간소비	1.6	2.6	2.1	2.8	2.0	2.4	2.3
설비투자	5.4	4.7	5.1	3.0	4.7	3.8	4.2
건설투자	1.2	6.7	4.1	4.8	2.4	3.5	2.8
상품수출	-0.9	1.0	0.1	1.9	2.5	2.2	2.8
상품수입	0.4	2.9	1.6	3.4	0.6	2.0	2.6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6.1.14.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참고

2. 2015 하반기^{e)}, 연간^{e)}, 2016^{e)}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5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698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였음.
 - 제조업은 취업자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하반기에 서비스업 생산 개선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확대됨.
 - 2015년 연간 취업자수는 메르스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2014년 높은 취업자 증가폭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30만 명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함.
-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7.6% 감소함.
 - 농림어업은 고령화,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영세 고령 농 은퇴가 늘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반적인 고용증가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고 용 동 향

단위: 천명, %

	2014			2015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3/4	4/4	연간	3/4	4/4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6,536 62.4	26,810 63.0	26,622 62.4	26,913 62.6	27,166 63.0	26,989 62.5	1.4 0.2
취 업 자	25,599	25,927	25,767	25,936	26,237	26,143	1.5
· 농 림 어 업	1,452	1,603	1,395	1,345	1,494	1,289	-7.6
· 광 공 업	4,343	4,360	4,384	4,500	4,525	4,566	4.2
(제 조 업)	4,330	4,346	4,374	4,486	4,511	4,550	4.0
· 건 설 업	1,796	1,833	1,854	1,823	1,844	1,835	-1.0
· 도소매·음식숙박업	5,889	5,930	5,991	5,962	5,979	5,958	-0.6
실 업 자	937	884	854	976	929	845	-1.1
실업률(계절조정)	-	3.5	3.5	-	3.6	3.4	-2.9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5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2% 증가,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음.
- 2015년 11월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0.3%), 의복 등 준내구재(3.5%),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월 대비 1.1% 감소함.
 - 전년 동월대비로는 내구재(13.9%), 준내구재(2.1%), 비내구재(2.3%) 모두 증가하여 5.5% 증가함.
- 12월 소매판매의 경우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카드 국내승인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는 한편,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은 감소함.

소 비 동 향

단위: %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p	11월 ^p
민 간 소 비	1.8	2.6	1.7	1.5	1.4	1.5	1.7	2.1	—	—
소 매 판 매	1.7	2.4	0.8	1.5	1.9	1.6	2.9	3.1	8.4	5.5
(내 구 재)1	5.1	3.8	-0.2	1.8	1.3	5.2	-0.4	0.4	8.3	-0.3
(준내구재)2	-0.6	-1.4	-1.1	4.8	-1.8	-3.5	-0.1	1.1	8.1	-3.5
(비내구재)3	0.8	-0.9	0.2	-0.7	1.0	-0.5	1.5	1.5	-1.6	-0.5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5년 10월^p, 11월^p은 전망치임.

5.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는 전분기와 전월 대비 증감률임.

자료: 기획재정부

- 2015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1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함(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와 비슷).
 - 기초연금과 사회수혜금 등 수급자 확대로 이전소득(11.5%)이 증가하고, 재산소득(7.8%), 근로소득(0.1%)증가
 - 반면, 사업소득은 1.6% 감소
- 2015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6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실질로는 1.2% 감소)함.
 - 월세가구 증가 등으로 실제 주거비 증가, 육류 및 채소 가격 인상으로 식료품 지출 증가, 의약품 및 입원의료서비스 지출 증가로 인해 주거수도광열(7.8%), 식료품(2.7%), 보건(5.0%) 등이 증가
 - 유가하락에 따른 연료비 감소, 자동차 및 통신기기, 의류 등의 구입 감소로 교통(12.5%), 통신(3.9%), 의류신발(3.5%) 등이 감소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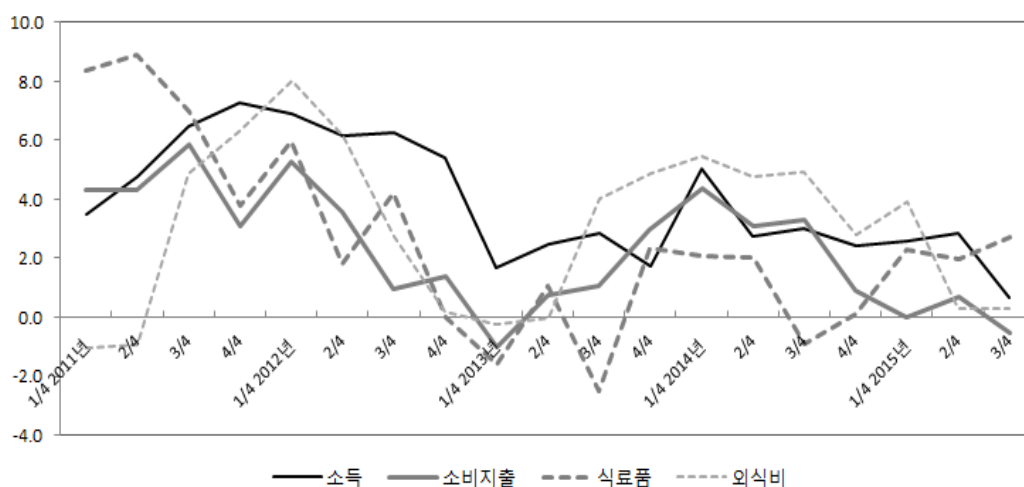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소 득	3.4	5.0	2.8	3.0	2.4	2.6	2.9	0.7
(경상소득)	3.2	4.4	2.9	3.0	2.3	2.8	2.1	0.8
(비경상소득)	8.6	20.9	-0.4	2.2	8.1	-2.1	25.9	-4.7
소 비 지 출	2.8	4.4	3.1	3.3	0.9	0.0	0.7	-0.5
(식료품·비주류음료)	0.8	2.1	2.0	-0.9	0.1	2.3	2.0	2.7
(의류·신발)	-0.1	-1.2	2.3	2.9	-2.9	-5.3	-3.4	-3.5
(교 통)	8.6	12.2	5.9	13.7	3.1	-4.5	-4.4	-12.5
(교 육)	0.4	2.6	0.5	-1.1	-0.5	-1.6	-1.6	-1.1
(음식·숙박)	4.7	6.1	4.9	5.2	3.3	3.8	0.3	0.4

자료: 통계청

- 2015년 3/4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실질로는 0.9% 증가)함.
- 육류 및 채소의 가격 인상으로 육류 10.1%, 채소 및 채소가공품 7.0% 증가

식료품 및 음식 소비지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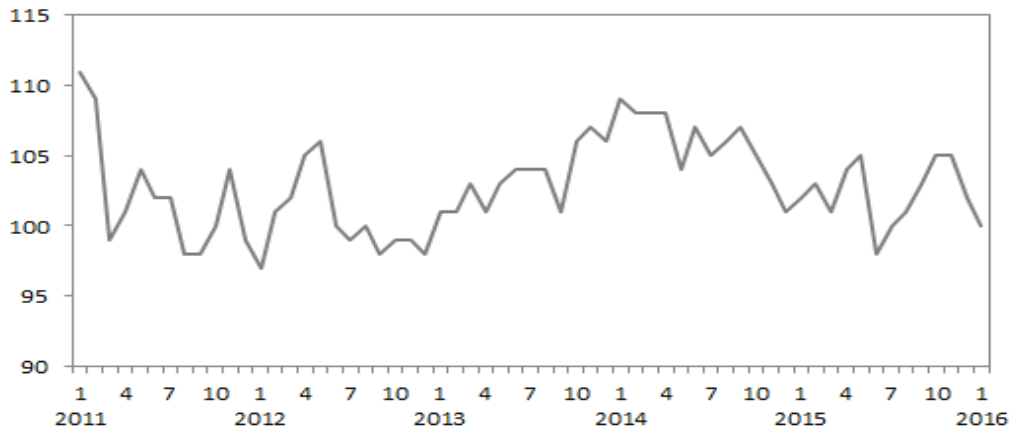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 2016년 1월 소비심리지수²⁾는 100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102)대비, 전월 대비(102) 1.96% 하락한 수준임.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65년 이래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5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100을 기준)는 110.1로 농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상승함.
 -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월까지 줄곧 전년 대비 0%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11월과 12월에 1%대 수준으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7%로 0%대 수준을 면치 못함.

2)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 상품 부문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물가지수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의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1.8% 상승함.
 - 11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하였음.
 -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류와 전기·수도·가스 가격은 하락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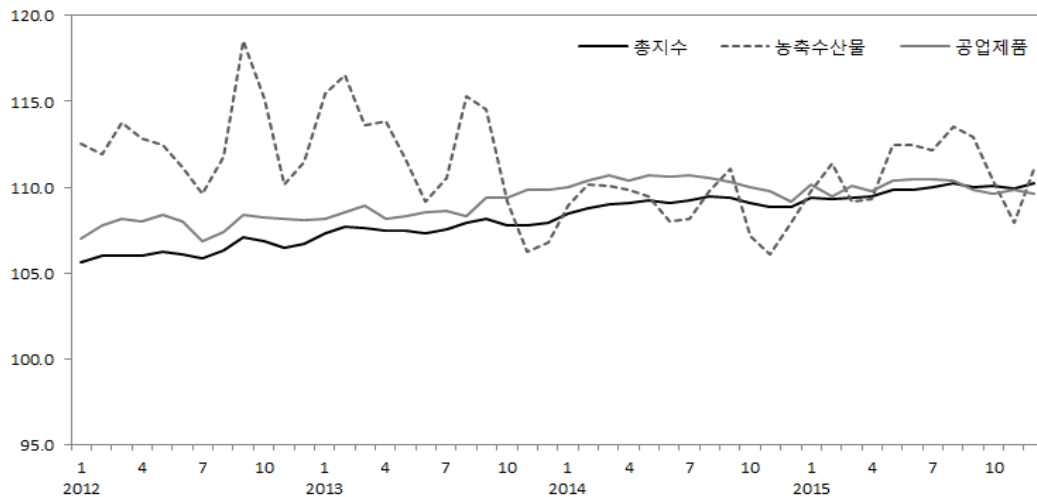
	2014					2015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09.0 (1.2)	108.8 (1.1)	109.1 (1.6)	109.4 (1.4)	108.9 (1.0)	109.8 (0.7)	109.4 (0.6)	109.7 (0.5)	110.1 (0.6)	110.1 (1.1)
상 품	111.1 (0.9)	111.3 (1.0)	111.4 (1.6)	111.4 (1.0)	110.3 (0.2)	110.3 (-0.7)	110.6 (-0.6)	110.5 (-0.8)	110.3 (-1.0)	109.9 (-0.4)
농축수산물	108.9 (-2.7)	109.7 (-4.8)	109.1 (-2.2)	109.7 (-3.3)	107.1 (-0.3)	111.1 (2.0)	110.1 (0.4)	111.4 (2.1)	112.9 (2.9)	109.8 (2.5)
공업 제품	110.3 (1.4)	110.4 (1.7)	110.6 (2.0)	110.5 (1.6)	109.7 (0.0)	110.0 (-0.2)	109.9 (-0.5)	110.2 (-0.4)	110.3 (-0.2)	109.7 (0.0)
서 비 스	107.4 (1.5)	106.8 (1.3)	107.4 (1.6)	107.8 (1.7)	107.8 (1.6)	109.4 (1.8)	108.4 (1.5)	109.1 (1.6)	109.9 (1.9)	110.2 (2.2)

주: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5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2로 전월대비 0.3%,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기저효과, 내수개선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됨.
 - 전월에 비해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의류·신발, 오락·문화 등은 상승하였고 교통, 보건 등은 하락함.

- 전년 동월에 비해 주류·담배,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육, 가사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의류·신발 등은 상승하였고, 교통, 주택·수도·전기·연료 등은 하락함.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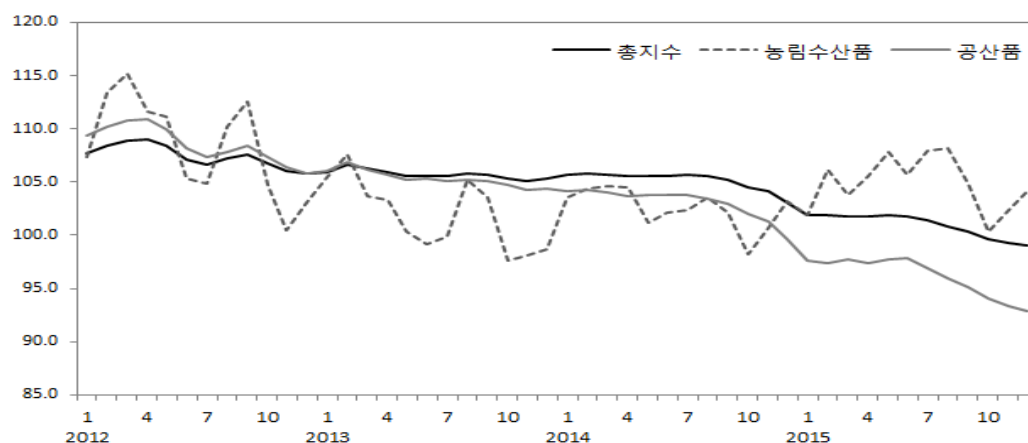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109.8로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보다는 2.7% 하락함.
 - 2015년 4/4분기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0% 상승함. 곡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 하락한 반면, 채소, 축산물, 과실은 각각 8.5%, 3.1%, 2.5% 상승함.
 - 양파, 대파, 마늘 등의 채소는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기뭄, 잦은 강우 등 기상여건이 좋지 못해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축산물의 경우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도축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대비 가격이 소폭 상승함.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0=100)

	2014	2015					등락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8.9	111.1	110.1	111.4	112.9	109.8	2.5	-2.7
농산물	105.3	106.7	107.1	107.3	108.3	103.9	3.0	-4.1
곡물	123.3	119.9	120.7	119.9	119.9	119.1	-3.2	-0.6
채소	84.8	93.2	94.6	92.4	96.1	89.6	8.5	-6.7
-양파	86.7	115.3	80.3	96.9	129.0	154.9	78.8	20.1
-마늘	88.4	108.9	93.4	100.1	117.3	124.9	106.2	20.1
-대파	57.8	75.5	68.1	60.3	91.7	81.8	39.9	-10.8
과실	111.5	106.1	104.6	109.0	107.8	102.9	2.5	-4.5
-배	117.3	109.2	107.0	108.1	109.6	112.3	13.4	2.5
-딸기	94.3	103.1	118.0	96.5	99.0	99.0	13.6	0.0
축산물	110.8	114.9	110.5	114.6	118.8	115.5	3.1	-2.8
수산물	115.0	116.2	117.3	116.7	114.2	116.5	-0.1	2.1

자료: 통계청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한국은행

-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15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99.3으로 전분기 대비 1.6% 하락, 전년 동기대비 4.4% 하락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상승하였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의 공산품 및 전력·수도·가스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2014			2015				
	연간	3/4	4/4	연간	3/4	4/4	11월	12월
총 지 수	88.1 (-6.0)	87.0 (-8.2)	87.5 (-3.5)	83.5 (-5.2)	85.4 (-1.8)	81.3 (-7.1)	80.9 (-8.7)	81.2 (-5.9)
농림수산물	91.8 (-5.9)	92.8 (-3.7)	92.1 (-1.9)	91.5 (-0.3)	95.4 (2.8)	91.5 (-0.6)	91.0 (-1.4)	91.5 (-1.4)
농 산 물	147.2 (-3.3)	151.1 (-3.0)	136.5 (-6.7)	145.0 (-1.5)	153.7 (1.7)	143.5 (5.1)	142.3 (5.8)	144.8 (1.3)
공 산 품	88.1 (-6.0)	87.0 (-8.3)	87.5 (-3.5)	81.3 (-7.1)	85.3 (-2.0)	81.3 (-7.1)	80.9 (-8.6)	81.1 (-6.0)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2015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1.3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하락함. 12월 수출물가는 81.2로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9%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4% 하락, 전년 동월대비 10.7% 하락함.
 - 2015년 연간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2% 하락, 계약통화기준으로는 10.2% 하락함.
- 2015년 4/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1.5로 전년 동기대비 0.6% 하락함. 12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91.5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나, 냉동어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1.4% 하락함.
- 2015년 4/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1.3으로 전년 동기대비 7.1% 하락하였음.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로는 6.0% 하락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2014			2015				
	연간	3/4	4/4	연간	3/4	4/4	11월	12월
총 지 수	94.9 (-7.6)	94.1 (-9.1)	89.9 (-9.6)	80.4 (-15.3)	81.3 (-13.6)	77.2 (-14.1)	77.0 (-15.6)	76.2 (-11.9)
농림수산물	98.9 (-2.1)	97.1 (-3.5)	100.4 (5.1)	94.1 (-4.9)	95.3 (-1.9)	91.6 (-8.8)	91.3 (-9.5)	91.7 (-9.1)
농 산 물	91.5 (-9.0)	87.7 (-11.0)	90.9 (-0.7)	85.0 (-7.1)	86.4 (-1.5)	82.2 (-9.6)	82.2 (-10.1)	82.0 (-10.5)
공 산 품	89 (-6.6)	87.8 (-8.2)	87.6 (-5.0)	83.8 (-5.8)	85.5 (-2.6)	82.9 (-5.4)	82.4 (-6.8)	83.2 (-3.9)

주: ()는 전년 동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수입물가 전년대비 증감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2015년 4/4분기 수입 물가지수는 77.2로 전분기 대비 5.0% 하락하고 전년 동기에 비해 14.1% 하락함.
- 2015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76.2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 전년 동월대비 11.9% 하락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2.7%, 전년 동월대비 16.1% 하락함.
 - 원재료의 경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7.2% 하락하였으며,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0.7%, 2.0%, 1.1% 상승함.
- 2015년 12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91.7로 전월 대비 0.4% 상승하였으나, 밀, 옥수수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대비 9.1% 하락한 수준임.

5. 금융·환율

- 2015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월 대비 0.9%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20.6% 증가)하여 통화량이 확대되는 추세임.
- 2015년 11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월대비 0.4% 증가, 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7.7%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요금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상대적으로 자금입출이 자유로운 상품 위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문 위주의 통화량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과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국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줄어들어 통화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계절조정기준 전월대비 0.4% 증가(원계열 전년 동월대비 9.2%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대비)

	2014	2015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1 ¹	13.4	12.5	14.3	15.5	17.7	18.9	18.5	21.0	21.3	21.4	21.5	20.6
M2 ²	8.1	8.0	8.0	8.3	9.0	9.3	9.0	9.3	9.2	9.4	8.8	7.7
Lf ³	8.2	8.4	8.6	9.3	10.0	10.3	10.5	10.6	10.4	10.5	10.2	9.2
본원통화 ⁴	13.6	15.0	15.9	15.3	16.4	15.7	17.0	20.6	13.2	20.1	17.3	18.8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5년 12월 장기시장금리는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단기시장금리는 상승함.
 - 국고채(3년)금리는 미국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 국제유가 약세, 중국 등 신흥국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함.
 - 회사채금리는 우량물·비우량물 모두 소폭 하락
 - 12월중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3개월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됨.
 - CD유통수익률(91일)은 2015년 12월 기준 1.67%로 전월 대비 0.08%p 상승함.

금리동향

단위: %

	201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2.04	2.02	1.87	1.84	1.75	1.79	1.78	1.74	1.65	1.63	1.75	1.72
회사채 ¹	2.36	2.30	2.13	2.11	2.06	2.11	1.48	1.49	1.48	1.48	1.49	1.48
CD유통수익률(91일)	2.13	2.12	1.95	1.80	1.80	1.65	1.65	1.64	1.60	1.58	1.59	1.67
콜금리 ²	1.99	1.99	1.83	1.74	1.74	1.50	2.00	1.98	1.95	1.96	2.12	2.14

주 1.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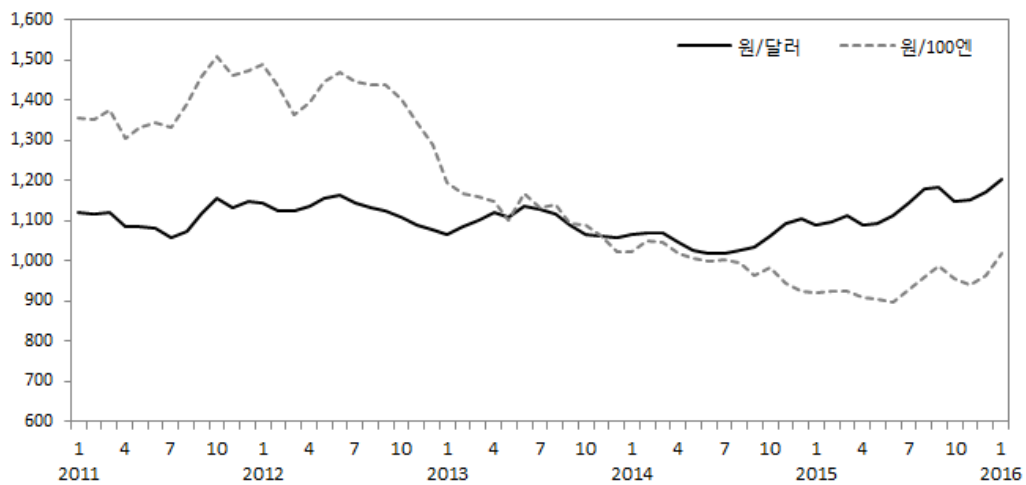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환율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여 원화가치는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임.
 - 2015년 4/4분기 원/유로 환율 및 원/위안 환율 모두 소폭 하락
- 2015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31.5원으로 전년에 비해 78.4원 상승하여 달러화 강세기조로 인한 원화가치는 6.9% 평가절하됨.
 - 반면, 2015년 연평균 원/엔 환율은 934.8원으로 전년에 비해 61.8원 하락하여 원화는 엔화대비 6.6% 절상됨.
 - 연평균 원/위안 환율은 179.5원으로 전년에 비해 8.6원 상승하여 원화는 위안화대비 4.8% 절하됨.

원화 환율 동향

	2014			2015				
	연간	3/4	4/4	연간	3/4	4/4	11월	12월
원/달러	1,053	1,026	1,087	1,131	1,168	1,158	1,152	1,172
원/100엔	996	988	950	935	956	953	940	963
원/유로	1,399	1,362	1,357	1,255	1,299	1,268	1,238	1,275
원/위안	171	166	177	180	185	181	181	182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Ⅱ. 농촌경제 동향³⁾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촌 물가

1.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5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2.9로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5.0% 상승함.
 - － 부류별로 살펴보면, 채소와 축산물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였고, 곡물과 과실은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6.4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8.0%, 3.7% 하락함.
 - － 미곡에서는 일반미와 찰쌀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9.1%, 9.7% 하락함.
 - － 서류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5% 상승하였으나,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10.9% 하락함. 이는 서류에서 고구마가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기대비 0.6%, 전분기에 비해서는 9.6% 상승함.
 - － 엽채류는 배추와 상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7.8%, 전분기보다 32.9% 상승함.
 - － 마늘, 양파 등이 전년 동기에 비해 상승한 반면 고추와 풋고추가 전년보다 하락하여 조미채류는 전년 동기대비 8.2%, 전분기에 비해서는 9.3% 하락함.
 - － 과채류는 토마토 등이 하락하였으나 오이, 호박을 포함한 다수 품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각각 2.8%, 30.2% 상승함.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선임연구위원(ysleek@krei.re.kr), 박지원 연구원(jione1105@krei.re.kr)이 작성하였음.

농가판매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3	2014			2015		등락률(%)	
		연간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3.2	111.3	104.5	113.5	107.5	112.9	-0.5	5.0
곡물	280.1	124.0	115.7	115.2	115.7	110.5	106.4	-8.0	-3.7
-미곡	234.3	124.5	120.4	120.3	119.8	115.0	108.9	-9.1	-5.3
-맥류	5.5	120.0	135.8	140.6	144.2	144.3	150.7	4.5	4.4
-두류/잡곡	23.9	138.8	88.2	76.6	85.7	60.9	79.5	-7.2	30.5
-서류	16.4	95.4	82.5	88.8	90.9	107.1	95.4	5.0	-10.9
청과물	406.5	124.4	116.2	96.8	119.1	100.4	118.7	-0.3	18.2
-채소	268.9	111.4	96.4	86.0	101.4	93.1	102.0	0.6	9.6
-과실	137.6	149.9	154.8	118.0	153.8	114.8	151.3	-1.6	31.8
축산물	252.6	84.0	98.5	102.0	101.5	112.7	110.4	8.8	-2.0
-가축	185.1	72.2	89.6	94.3	93.8	112.1	111.1	18.4	-0.9
-유란	67.5	116.3	122.8	123.2	122.6	114.4	108.6	-11.4	-5.1
기타농산물	60.8	110.5	111.7	117.0	115.1	119.0	114.9	-0.2	-3.4
-특용작물	42.4	120.2	123.2	139.7	127.9	136.8	124.0	-3.0	-9.4
-화훼	15.3	86.1	83.6	58.4	84.2	75.4	95.9	13.9	27.2
-부산물	3.0	98.5	93.9	94.4	92.2	90.0	84.5	-8.4	-6.1

자료: 통계청

- 과실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51.3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6% 하락했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31.8% 상승함.
 - 배와 복숭아 등이 전년 동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사과와 감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4% 하락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0.4로 전년 동기대비 8.8% 상승한 반면, 전분기보다 2.0% 하락함.
 - 유란은 전년 동기와 전분기에 비해 모두 하락하였으나, 한우 및 육우가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가축은 전년 동기보다 18.4% 상승함.

1.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5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9.1로 전년 동기보다 0.9%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5% 하락함.
- 농업용품지수는 107.3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각각 0.3%, 1.0% 하락함.
 - 가축과 농약이 전년 대비 각각 26.3%, 5.4% 상승한 반면, 영농광열과 영농자재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26.8%, 9.7% 하락함.
- 농촌임료금지수는 135.8로 전년 동기대비 3.5% 상승함.
 - 농업노동임금은 전년보다 3.6% 상승한 가운데 농기계임차료는 전년 동기대비 0.8% 상승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7% 하락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0년=100)

	가중치	2013	2014			2015		등락률(%)	
		연간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7.1	108.4	108.9	108.1	109.7	109.1	0.9	-0.5
가계용품	576.0	105.5	106.7	107.2	106.5	108.5	108.2	1.6	-0.3
농업용품	376.9	107.7	108.3	109.0	107.6	108.4	107.3	-0.3	-1.0
-종자	29.3	144.4	146.2	146.5	146.2	139.6	139.3	-4.7	-0.2
-비료	39.0	92.4	79.6	79.6	79.6	80.1	80.1	0.6	0.0
-농약	29.9	113.7	117.6	117.8	117.8	124.2	124.2	5.4	0.0
-농기구	64.0	114.1	116.9	118.1	118.1	119.5	119.5	1.2	0.0
-영농광열	26.7	127.3	120.0	120.7	112.5	86.8	82.3	-26.8	-5.2
-가축	51.3	60.2	82.0	89.2	84.3	111.9	106.5	26.3	-4.8
-사료	125.0	114.4	110.4	108.7	108.3	104.8	104.8	-3.2	0.0
-영농자재	11.7	107.9	105.9	105.9	104.8	94.6	94.6	-9.7	0.0
농촌임료금	47.1	122.2	128.9	129.8	131.2	135.8	135.8	3.5	0.0
-농업노동임금	44.9	122.4	129.3	130.3	131.6	136.4	136.4	3.6	0.0
-농기계임차료	2.2	117.9	121.0	121.2	121.5	123.4	122.5	0.8	-0.7

자료: 통계청

1.3. 농업경영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5년 4/4분기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111.0으로 전년 동기대비 2.5%, 전분기에 비해서는 0.3% 하락함.
- 2015년 4/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101.7로 전년 동기대비 2.0%, 전분기보다 5.4%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과 농업투입재가격지수가 전년에 비해 모두 하락하였으나 농가 판매가격지수의 하락률이 더 작아 농업경영조건이 전년 동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농업투입재가격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채소 및 과실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분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농업경영조건지수

	2014		2015		등락률(%)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04.5	113.5	107.5	112.9	-0.5	5.0
농업투입재가격(B)	114.4	113.8	111.3	111.0	-2.5	-0.3
농업경영조건(A/B×100)	91.3	99.7	96.6	101.7	2.0	5.4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5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6%, 전분기에 비해서는 13.7% 감소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29만 9천명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각각 7.1%, 3.0% 감소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8.0% 감소한 74만 3천 명이었고, 여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7.0% 감소한 54만 6천 명으로 나타남.
- 농가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11.4% 감소하고, 전분기보다 11.1% 감소한 167만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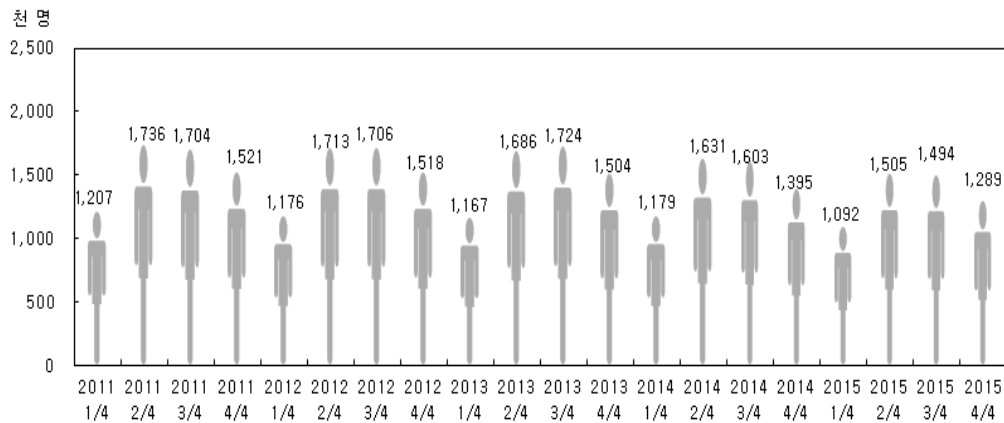
단위: 천명

		2014		2015		증감률(%)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5,927	25,767	26,237	26,143	1.5	-0.4
	(계절조정)	25,668	25,740	25,971	25,740	0.0	-0.9
	농림어업	1,603	1,395	1,494	1,289	-7.6	-13.7
	(계절조정)	1,438	1,398	1,339	1,299	-7.1	-3.0
	남성	904	808	834	743	-8.0	-10.9
	여성	699	587	661	546	-7.0	-17.4
	농가	2,061	1,885	1,878	1,670	-11.4	-11.1
	농가남성	1,137	1,065	1,037	945	-11.3	-8.9
	농가여성	924	820	841	725	-11.6	-13.8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2015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2/4분기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함.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3. 농축산물 수출입

3.1. 수출 동향

- 2015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물량은 97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함.
 - 수출물량의 증가는 모든 부류에서 나타나, 농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3.8%, 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8.5%, 2.5%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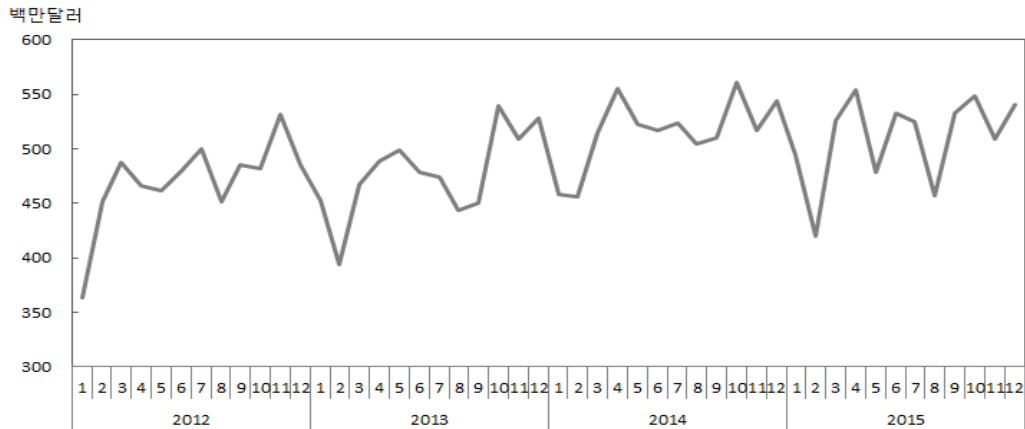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4		4/4		3/4		4/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883	1,538	938	1,621	919	1,515	972	1,599	3.6	-1.4
	농산물	709	1,287	712	1,402	682	1,284	738	1,370	3.8	-2.3
	－곡류	9	8	11	10	15	10	10	8	-7.6	-13.0
	－과실류	33	59	51	95	30	57	47	98	-7.3	3.9
	－채소류	42	72	27	75	30	77	36	84	31.2	12.5
	축산물	27	130	31	132	31	126	33	128	8.5	-3.3
	－포유육류	1	12	1	9	1	5	2	11	75.6	15.3
	－가금육류	5	8	6	11	7	11	9	13	38.5	20.0
	－낙농품	9	42	11	52	9	41	9	46	-16.7	-12.0
	임산물	148	121	195	87	207	105	200	101	2.5	15.8
수산물		182	527	170	535	156	472	163	496	-3.9	-7.3
전체		1,065	2,064	1,107	2,156	1,076	1,987	1,135	2,094	2.5	-2.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5억 9,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함.
 - 임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15.8% 증가한 반면,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에 비해 각각 2.3%, 3.3% 감소함.
 - 농산물에서는 곡류가 전년에 비해 13.0% 감소하였으나 과실류는 3.9%, 채소류는 12.5% 증가함.
 - 축산물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낙농품이 12.0% 감소한데 반해 포유육류와 가금육류는 각각 15.3%, 20.0% 증가함.
- 2015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6% 감소한 반면, 전월에 비해서는 6.2% 상승함. 2015년 한 해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다른 해에 비해 월별 수출액 증감이 크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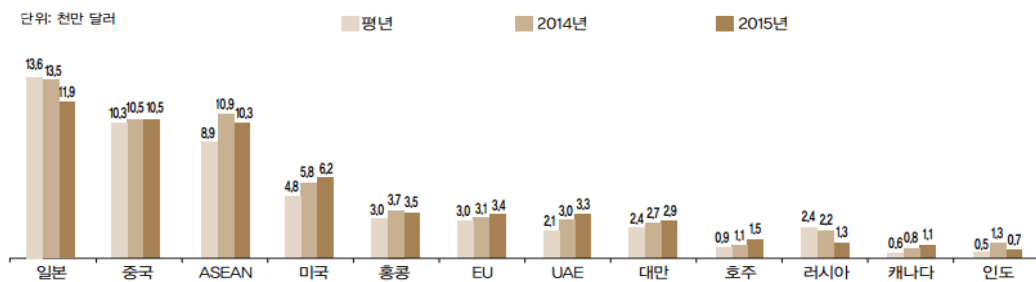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5년 주요 수출대상국 중 일본, ASEAN, 중국, 홍콩 등으로의 누적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일본 수출액은 12.1%로 크게 감소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4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6년 1/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7.2로 전분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⁴⁾.
 - 이는 원재료의 가격 상승과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임.

4) 한국무역협회, '2015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3.2. 수입 동향

- 2015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은 1,304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함.
- 축산물이 전년에 비해 2.2% 감소한데 반해 농산물은 7.1%, 임산물은 11.8%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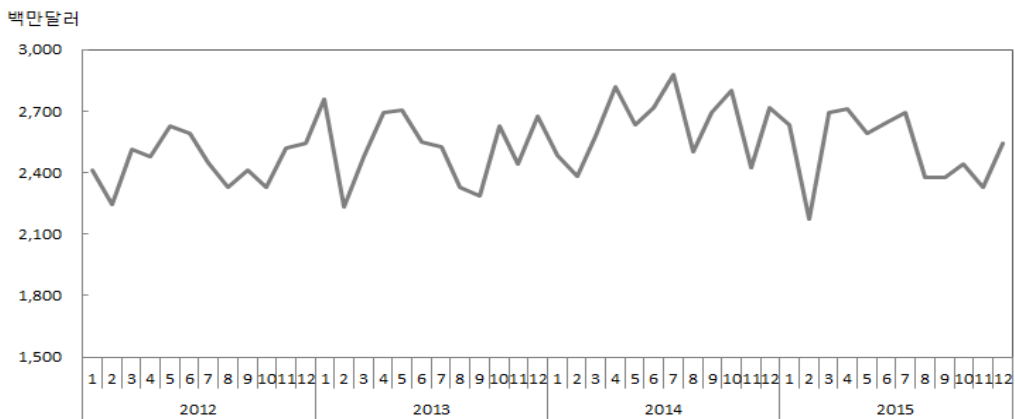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4		4/4		3/4		4/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928	8,081	12,056	7,940	12,123	7,450	13,047	7,314	8.2	-7.9
	농 산 물	7,966	4,864	8,158	4,825	7,900	4,237	8,738	4,388	7.1	-9.1
	－곡류	3,449	1,047	3,921	1,244	3,773	963	4,041	945	3.1	-24.1
	－서류	149	66	161	67	64	43	127	61	-20.8	-8.1
	－두류	415	279	272	175	316	148	454	236	66.9	34.7
	－과실류	213	372	198	302	220	362	211	287	6.6	-4.9
	－채소류	211	202	241	206	266	227	361	277	50.0	34.3
	축 산 물	364	1,567	347	1,448	392	1,571	339	1,278	-2.2	-11.8
	－포유육류	192	867	180	827	233	949	189	750	5.5	-9.3
	－가금육류	35	85	40	94	34	39	33	82	-16.2	-12.9
	－낙농품	58	242	56	230	59	196	59	190	5.8	-17.4
	임 산 물	3,598	1,649	3,551	1,666	3,831	1,642	3,969	1,647	11.8	-1.1
수 산 물		1,375	1,104	1,500	1,271	1,242	1,066	1,639	1,235	9.3	-2.9
전 체		13,303	9,184	13,556	9,211	13,365	8,516	14,686	8,549	8.3	-7.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73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9% 감소함.
- 수입액의 감소는 모든 부류에서 나타나 전년 동기보다 농산물은 9.1%, 축산물은 11.8%, 임산물은 1.1% 감소함.
- 두류와 채소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류가 크게 감소하고 그밖에 서류, 과실류에서도 감소를 보여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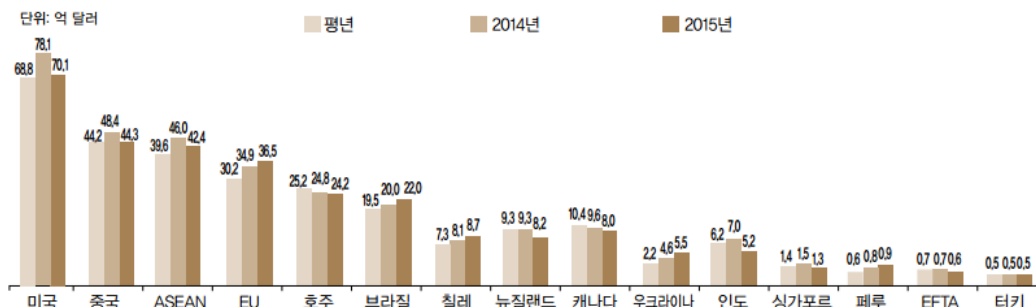
- 축산물에서는 모든 부류에서 감소가 나타났고, 특히 낙농품과 가금육류의 수입액 감소가 컸음.
- 2015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월에 비해 6.4% 감소하고, 전월에 비해서는 9.1% 증가한 25억 4천만 달러임.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 4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 2015년 주요국별 누적 수입액은 미국산이 전년에 비해 10.2%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밖에 ASEAN, 중국, 호주산 수입액도 감소함.

3.3. 순수입 동향

- 2015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순수입물량은 1,207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함.
 - 농산물의 경우 순수입물량은 8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함.
 - 다른 부류에 비해 순수입물량이 적은 축산물의 경우 전년에 비해 3.3% 감소한 30만 6천 톤임.
- 2015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순수입액은 57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5% 감소함.
 - 농림축산물의 순수입액은 모든 부류에서 전년 동기대비 감소를 보임.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각각 11.8%, 12.6% 감소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4. 4/4분기		2015.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1,118	6,319	12,075	5,715	8.6	-9.5
농 산 물	7,446	3,424	8,000	3,019	7.4	-11.8
축 산 물	316	1,316	306	1,150	-3.3	-12.6
임 산 물	3,356	1,579	3,769	1,547	12.3	-2.0
수 산 물	1,330	736	1,476	739	11.0	0.4
전 체	12,448	7,055	13,551	6,454	8.9	-8.5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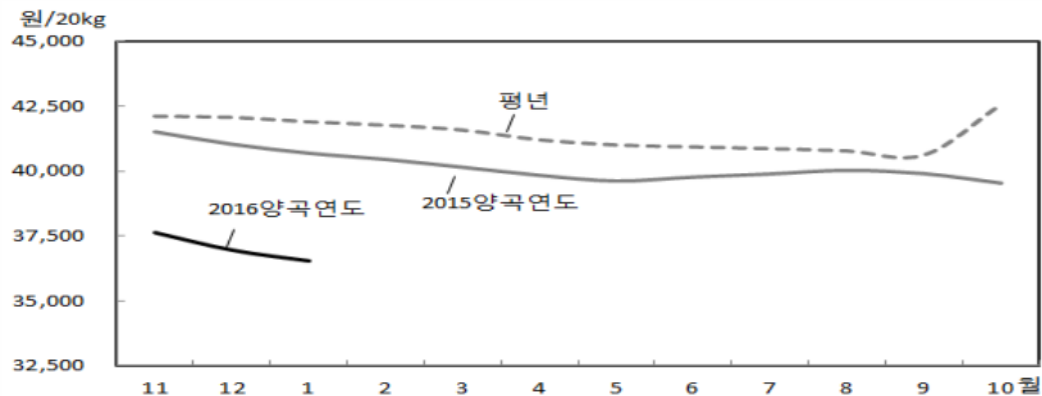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⁵⁾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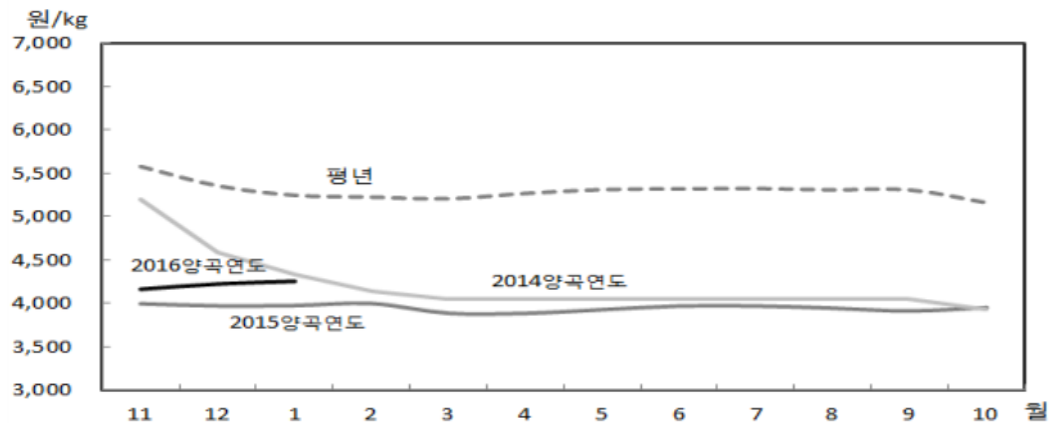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동향
 -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크게 늘어나 2015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8만 6천 톤 증가한 432만 7천 톤임.
 - 2년 연속 역대절진폭 발생과 생산증가로 단경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 농가의 수확기 출하량은 늘어나고 보유 재고량은 감소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태훈 연구위원(taehun@krei.re.kr), 김종진 부연구위원(jkim@krei.re.kr), 승준호 (jhseung@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손미연(sonmy@krei.re.kr), 최선우 (opendoyon@krei.re.kr), 채주호(whiteshark@krei.re.kr), 임권택(lkt2000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12월 31일 기준, 정부와 산지유통업체들의 2015년산 벼 매입실적은 전년 대비 6.3% 증가(16만 2천 톤)하였으며, 이는 매입계획량의 101.7% 수준임.
- 2015년산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은 15만 2,158원/kg으로 전년 대비 9.1% 하락함. 한편, 10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전년 대비 8.0%, 11월은 9.3%, 12월 9.9%로 하락하여 가격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1월 평균 산지 쌀 가격은 14만 6,161원/80kg으로 전년 대비 10.2%, 전월 대비 1.1% 하락함.
 - 2016양곡연도 쌀 생산량 증가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4분기 산지 쌀 가격은 꾸준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2016년산 벼 재배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금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2%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10년간(2.0%)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수준임.

1.2. 콩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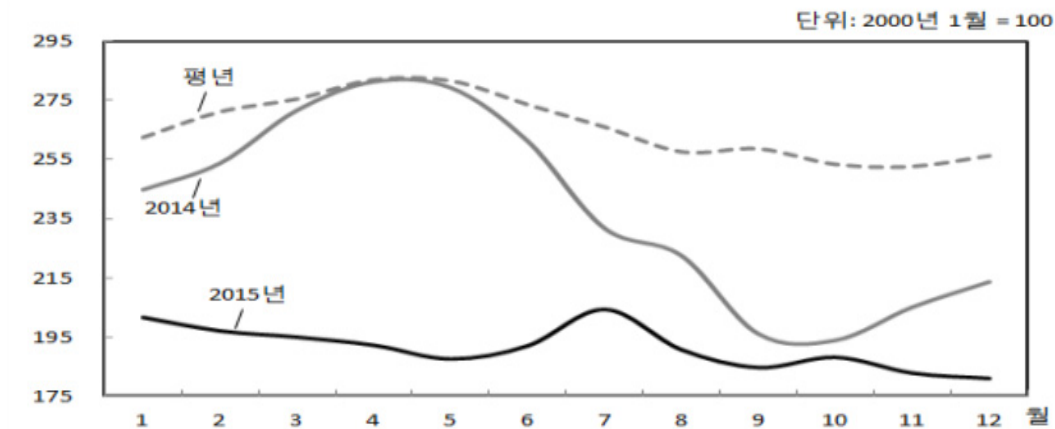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통계청 발표(2015.12.22)에 따르면, 2015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1% 감소한 5만 6,666ha, 단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183kg/10a으로 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7% 감소한 10만 3,504톤임.
 - 10월~12월 국산 콩 도매가격은 4,114원/kg으로 2015년산 콩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함.
 - 가을장마로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산지유통업체들이 수매시기를 늦추어 2015년산 콩 시세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 따라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가격 상승폭이 제한됨.
 - 제주, 전남지역이 주산지인 콩나물 콩은 기상 호조로 수확량이 늘어 가격 하락함.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5년산 콩 수확기 이후 국산 콩 도매가격은 강보합세 지속됨.
 - 2016년 1월 국산 콩 평균 도매가격은 4,255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함.

- 비대기 가뭄과 수확기 장마 등 기상악화로 2015년산 콩의 품위가 좋지 않고, 2013년산과 2014년산 정부비축물량이 재고로 남아 있어 가격 상승효과 일부 상쇄함.

1.3.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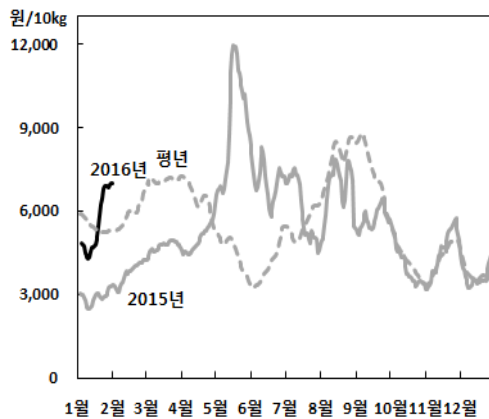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4.8% 하락한 184.0임.
 - 2015/16년 북반구 주요곡물의 수확이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3년 연속 풍작 예상 등 수급이 여유로운 상황임.
 - 저유가 지속 및 달러화 강세 등 거시경제 요인들도 국제곡물 선물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브라질의 기상여건 개선이 콩 생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콩 선물가격이 전 분기 대비 7.0% 하락하였으며, 밀과 옥수수도 전 분기 대비 각각 3.6%, 2.5% 하락함.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저유가 및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1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가, 달러화 가치 등 거시경제 요인들의 변동으로 인한 선물시장의 자본 유입과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등락을 반복함.
 - 2016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작황호조, 순조로운 수확 진행 등으로 여유로운 수급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단, 동남아 가뭄 지속 및 라니냐 발생 가능성, 아르헨티나 정책(곡물 수출, 환율) 변화 등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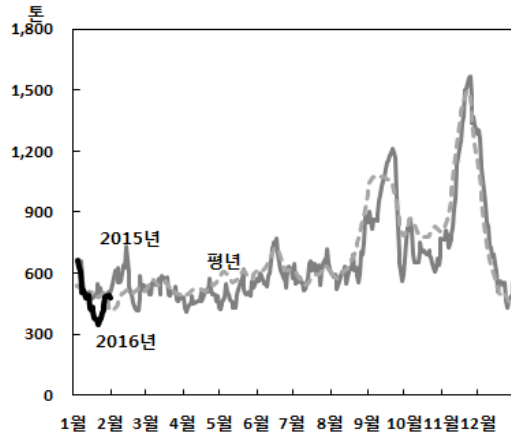
2. 엽근채소⁶⁾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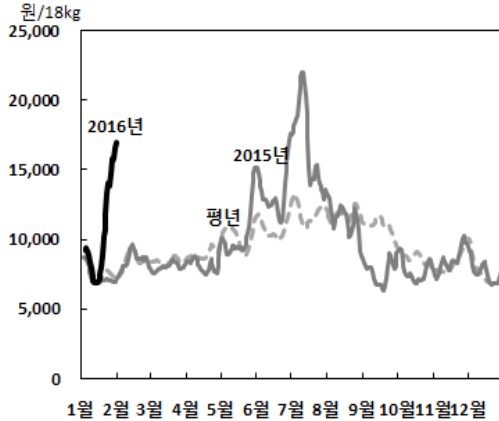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가격이 낮았던 전년 동기보다 25% 높았지만 가을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많았고 김장철 소비 부진으로 평년 동기보다 24% 낮은 수준
 - 4/4분기 월별 가격은 10월 4,018원, 11월 4,583원, 12월 3,722원으로 나타났음.
 - * (2015년 4/4분기) 4,108원/10kg, (2014년 4/4분기) 3,279원, (평년 4/4분기) 5,424원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i@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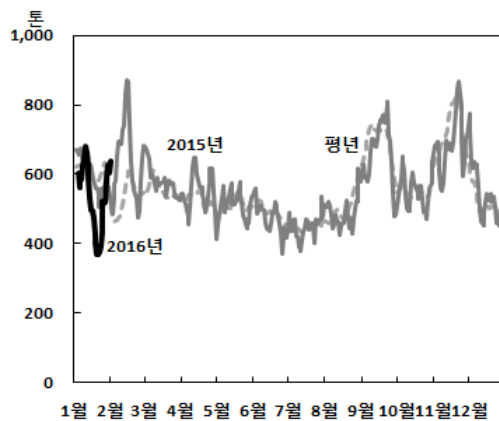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월동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6% 감소한 32만 톤 전망
 - * 2015년산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3%, 6% 감소한 3,579ha, 단수는 생육기 잦은 강우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8%, 1% 감소한 8,921kg/10a으로 추정되어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평년보다는 6% 감소한 32만 톤으로 전망
 - 2016년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을 전망
 - * 2016년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월동배추 산지 및 저장 출하량 감소로 전년(3,784원) 및 평년(6,106원) 동기보다 높을 전망
- 2016년 봄배추 재배의향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6년 봄배추 작형별 재배(의향)면적은 시설 봄배추의 경우 면적이 크게 줄었던 전년보다 60~70% 증가하지만 노지봄배추는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전체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약 5~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노지봄배추는 아직 재배의향이어서 향후 월동배추 저장 출하기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준랭지무 2기작 출하량 증가 및 소비 부진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3%, 23% 낮았음.
 - 4/4분기 월별 가격은 10월 7,847원, 11월 8,488원, 12월 7,750원으로 나타났음. 10월은 준고랭지무 2기작 생산량 증가와 가격약세에 따른 출하지연으로 가격이 낮았으며 11~12월은 작황 호조로 평년보다 낮은 약세 지속
 - * (2015년 4/4분기) 8,028원/18kg, (2014년 4/4분기) 8,316원, (평년 4/4분기) 10,442원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5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 16% 감소할 전망
 - * 월동무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7% 감소한 4,109ha, 단수는 작황이 크게 좋았던 전년보다 16%, 평년보다 10% 적은 6,058kg/10a으로 추정됨. 따라서 금년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 16% 감소한 24만 9천 톤으로 전망

－ 1/4분기 무 도매가격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높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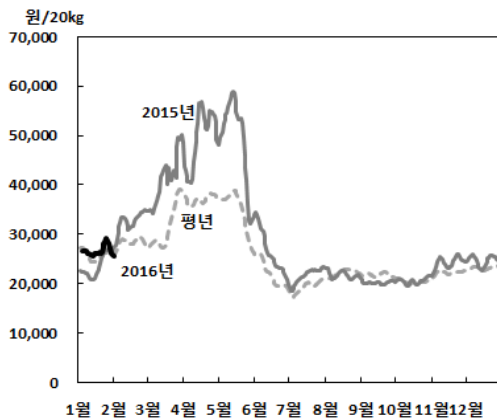
*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월동무 산지 및 저장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높은 강세가 지속될 전망

● 2016년 봄무 재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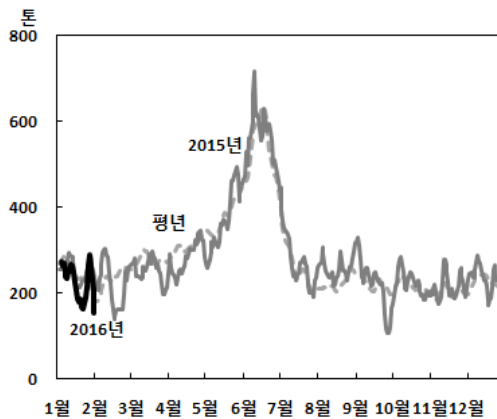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6년 봄무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아직 봄무 재배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고 월동무 출하기 가격 상승에 따라 실제 봄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3. 감자

수미 도매가격 동향



감자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수미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3,23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높으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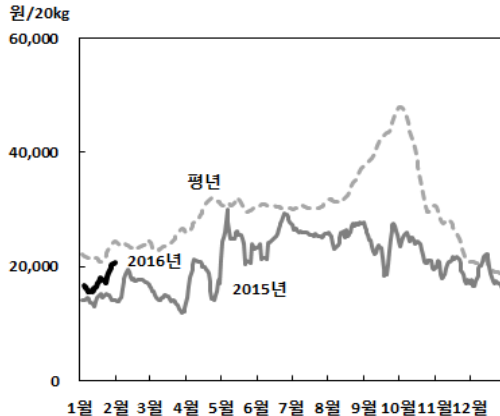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23,230원/kg, (2014년 4/4분기) 18,444원, (평년 4/4분기) 23,618원

* 2015년 10월 20,683원/kg, 11월 24,338원, 12월 24,66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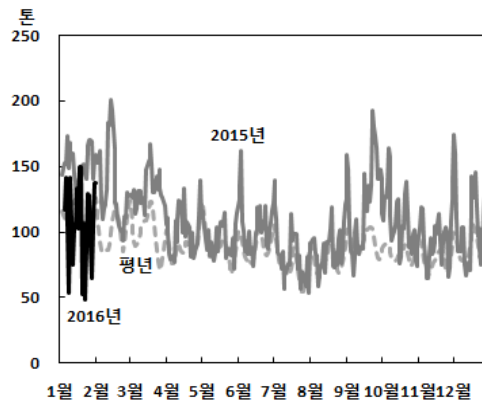
- 고랭지감자 출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봄저장감자 출하량이 감소해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가을감자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 23% 감소한 5만 톤 내외로 전망
 - * 주산지인 제주지역 가을감자 재배면적 감소, 생육기 잦은 강우 및 더듬이병으로 인한 작황 부진
 - * 1월 폭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출하작업이 일부 지연됨.
 - 고랭지감자 저장량이 증가하여 수미감자 수급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나, 가을감자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체 출하량은 전년보다 줄어듦 전망
 - 2016년 1/4분기 수미 도매가격은 2015년산 저장량 증가로 전년(32,472원)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나 대지 도매가격은 가을감자 생산량 감소로 전년(49,686원)과 평년(40,516원) 대비 높을 전망
- 2016년 봄감자 재배의향
 - 2016년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2015년 출하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시설봄감자: 전년 대비 3% 증가 전망
 - * 노지봄감자: 전년 대비 5% 증가 전망

2.4.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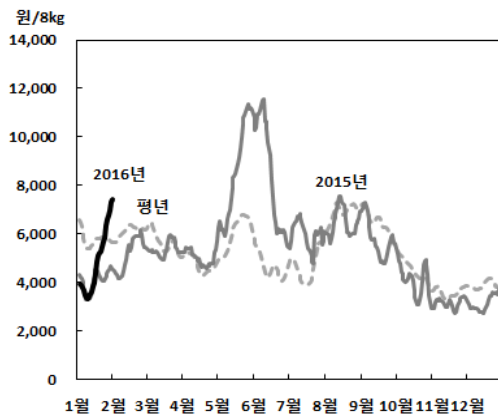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도매가격은 가을 및 겨울작형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봄 저장 및 고랭지당근의 출하가 이월되면서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4/4분기 당근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0,471원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4%, 36% 하락함.
 - * (2015년 4/4분기) 20,471원/20kg, (2014년 4/4분기) 21,255원, (평년 4/4분기) 31,792원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당근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감소하지만 평년과 비슷한 6만 톤 전망
 - * 2015년산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0%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2% 증가한 1,530ha, 단수는 생육기 잦은 강우 및 폭설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전년 및 평년보다 3% 감소한 3,903kg/10a으로 추정
 - 2016년 1/4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 동기보다 높을 전망
 - * 2016년 1/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겨울당근 산지 및 저장 출하량 감소로 전년 (15,361원)보다 높지만 평년(23,084원) 동기보다는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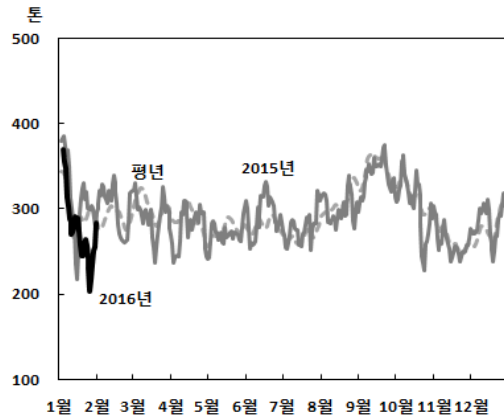
- 2016년 봄당근 재배의향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6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당근이 전년보다 각각 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하지만 아직 봄당근 재배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고 겨울당근 출하기 가격 상승에 따라 봄당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2.5.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일별 가격 및 반입량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11~2015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가을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 4/4분기 양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3,479원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보다 각각 1%, 39% 하락함.

* (2015년 4/4분기) 3,479원/8kg, (2014년 4/4분기) 3,523원, (평년 4/4분기) 5,692원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4% 감소하지만 평년보다는 8% 많은 16만 5천 톤 전망

* 2016년산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24% 증가한 2,931ha, 단수는 생육기 한파 및 폭설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6%, 13% 감소한 5,623kg/10a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전년보다 4% 감소하지만 평년보다 8% 증가한 16만 5천 톤으로 전망

– 2016년 1/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2016년 1/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겨울양배추 산지 출하량 감소로 전년(4,896원)보다 높을 전망

* 또한 기상여건 변화로 양배추 상품성이 저하되어 품위 간 가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

● 2016년 봄양배추 재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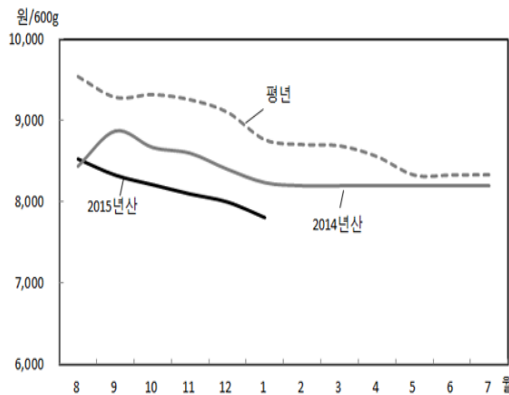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16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작형별로는 시설과 노지봄양배추가 전년보다 각각 4%,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아직 봄양배추 재배를 결정하지 못한 농가가 많고 겨울양배추 출하기 가격 상승에 따라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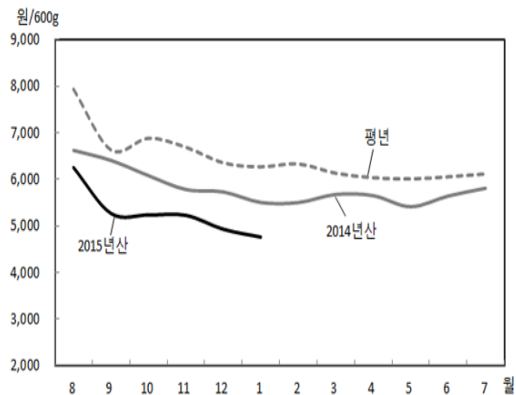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⁷⁾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0년 8월~2015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15년 4/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의 경우 2015년산 생산량이 많아 4/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12% 낮은 8,100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23% 낮은 5,130원 수준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8,100원/600g, (전년) 8,560원, (평년) 9,230원

* 산지가격: (금년) 5,130원/600g, (전년) 5,860원, (평년) 6,640원

- 2015년산의 경우 고추 수확기 기상 여건 양호로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월 재고량도 많았음.
- 2015년산 재배면적은 2014년산보다 4% 감소한 3만 4,514ha로 확정 발표됨 (통계청, 8.27).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연구위원(swootamu@krei.re.kr), 송성환 전문연구원(song9370@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노수정(nosu303y@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015년산 고추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9.7	4.0	-2.3	-4.5	-5.7	-8.8	-2.3	-4.3	-4.4

자료: 통계청.

- 11월 25일 통계청 조사결과,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은 수준이
나,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보다는 적은 9만 7,700톤으로 확정 발표됨.

* 금년 초기 생육이 전년보다 좋았던 경북,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수확량이 많았으며, 강
우일수가 적어 병해 발병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함.

2015년산 건고추 생산량

단위: ha, kg/10a, 천톤, %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5		34,514	283	97.7
2014		36,120	236	85.1
평년		44,173	226	100.0
증감률	전년	-4.4	19.9	14.8
	평년	-21.9	25.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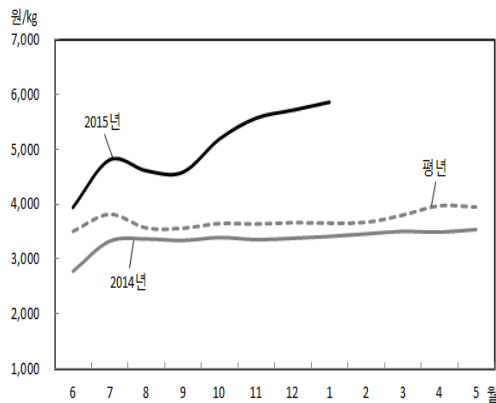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5년산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이월 재고량도 많아 2016년
1/4분기 국내산 공급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가정용 건고추 구입은 수확기와 김장철 전후로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12월
이후 국내산 건고추 소비는 대량 수요처 중심으로 이루어짐. 국내산 건고추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자재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서 수입산 고추 소비
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들 대량 수요처를 중심으로 국내산 소비를
단기간에 확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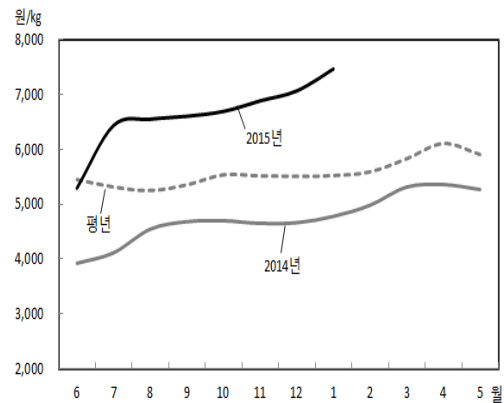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1월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 하락한 7,810원임. 화건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4% 낮으며, 전월 대비 약보합세인 4,760원임.
- 2016년 1/4분기 가격은 국내산 공급이 많아 2015년 1/4분기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3.2. 마 늘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0년 6월~2015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난지형 마늘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마늘 생산량과 입고량 감소로 전년, 평년 동기보다 각각 63%, 50% 높은 수준이었음.
- 간마늘 도매가격은 2015년산 통(피)마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47% 높고, 평년보다 25% 높은 수준이었음.

* 난지형 도매가격: (금년) 5,493원/kg, (전년) 3,377원/kg, (평년) 3,652원/kg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6,882원/kg, (전년) 4,672원/kg, (평년) 5,522원/kg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2015년산 마늘 재고량이 적어 전년, 평년보다 각각 72%, 60% 높은 kg당 5,862원이었음.
 - 2~3월 마늘 가격은 국내산 마늘 재고량 감소로 평년에 비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12월 말 기준, 감모량을 감안한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약 4만 톤으로 전년, 평년보다 각각 28%, 26% 적은 수준임.

2015년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연산		입고량(톤)	출고량(톤)	감모량(톤)	재고량(톤)
2015		85,576	43,595	2,196	39,786
2014		105,354	46,904	2,899	55,550
평년		107,000	50,000	3,406	53,594
증감률 (%)	전년 대비	-18.8	-7.1	-24.3	-28.4
	평년 대비	-20.0	-12.8	-35.5	-25.8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5년산 5.2%, 2014년산 5.0%, 평년 6.0%)을 적용하고, 정부와 농협의 비축·수매 통(피)마늘 물량이 포함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3. 재고량과 출고량은 12월 말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5년산 마늘 가격 상승으로 난지형 대서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할 전망이다.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3% 감소하지만, 난지형은 8% 증가. 난지형 마늘 가운데 남도종은 전년대 큰 차이가 없으나 대서종은 10% 이상 증가 전망
- 농업관측센터 조사치를 적용한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약 21,700ha로 전년(20,638ha)보다 5% 증가하나, 평년(25,757ha)보다는 16% 적을 전망이다.

2016년산 마늘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전체
한지	-13.5	-3.9	-9.5	-1.9	-	-2.7
난지	27.3	14.6	6.5	12.5	-6.9	7.5
전체	-12.8	3.9	6.1	6.7	-6.9	5.1

자료: 농업관측센터, 1월 13일 표본농가 조사치.

- 1월 중순 기준 2016년산 마늘 생육은 양호하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향후 작황은 변동 가능성 있음.

* 겨울철 기온이 높고 파종 후 강수량이 많아 지상부 생육은 빠른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당수의 재배농가들이 웃자람과 습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산지에서는 잎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2016년산 마늘 전년 대비 생육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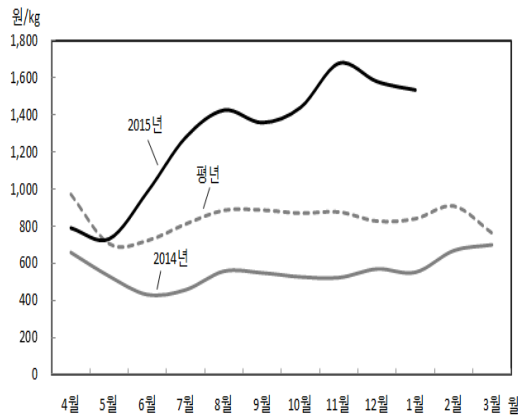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좋은	비슷	나쁨	전체
경기·강원	50.0	25.0	25.0	100.0
충청	7.1	58.9	33.9	100.0
호남	44.6	27.4	28.1	100.0
영남	39.2	36.0	24.8	100.0
제주	27.3	45.5	27.3	100.0
전체	33.7	38.3	2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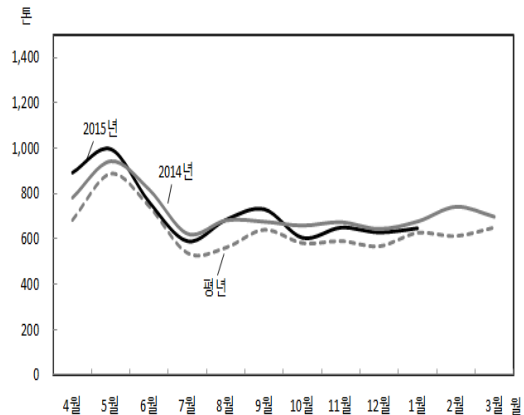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1월 13일 표본농가 조사치.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0년 4월~2015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국내산 양파 4/4분기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15년산 저장양파 감소로 평년 동기보다 83% 높은 858원임.
 - * (금년) 1,534원/kg, (전년) 551원, (평년) 840원
 - 수입산 양파 도매가격은 924원으로 3/4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 * 이는 국내산 양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대형수요처 등의 수입산 사용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 가락시장 수입산 반입비중: (3/4분기) 29%, (4/4분기) 45%
- 2015년산 저장양파 동향
 - 12월 말 기준 저장양파 출고량은 평년보다 7% 감소한 34만 2천 톤임.
 - 감모를 감안한(18.3%) 2015년산 저장양파 재고량은 평년보다 28% 감소한 17만 5천 톤으로 추정됨. 이 중 정부 구매·비축물량은 약 6천 톤 수준임.

2015년산 양파 추정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감모량	재고량
2015		556,426	341,968	39,255	175,203
2014		770,529	417,059	63,271	290,199
평년		657,474	366,909	48,524	242,041
증감률	전년 대비	-27.8	-18.0	-38.0	-39.6
	평년 대비	-15.4	-6.8	-19.1	-27.6

주: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5년산 18.3%, 2014년 17.9% 평년 16.7%)과 소비감량 부분을 적용하였음.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6년 1/4분기 도매가격은 국내산 재고량이 부족하나, 정부 비축물량이 방출되며 TRQ 도입으로 수입량도 증가하여 2015년 4/4분기 대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양파 TRQ 운용은 2015년 7월 수입권공매로 4,606톤, 8~12월 실수요자배정으로 13만 6,994톤, 국영무역으로 11~12월 1만 3,460톤이 도입되었음. 2016년 1월에도 실수요자배정으로 2만 645톤이 도입되었음.

- 2016년산 재배면적은 2015년산보다 3%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3% 감소한 1만 8,634ha로 추정됨.

* 조생종 재배면적은 산지유통인 계약재배가 늘어나 2015년산보다 27% 증가하였으나, 중만생종은 비슷한 수준

- 2016년산 생산량은 2015년산보다 9%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3% 감소한 118만 7천 톤으로 추정됨.

- 2016년산 양파의 생육상황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11~12월 지속된 비, 높은 기온으로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 생육 초기보다 부진한 것으로 조사됨.

* 수확시기가 가장 빠른 제주지역의 조생종 양파 생육은 정식이후 지속된 비로 뿌리 활착이 원활치 못해 결주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작황이 부진해졌음. 한편, 제주지역의 조생종 양파 수확은 1월 폭설, 한파 등으로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2016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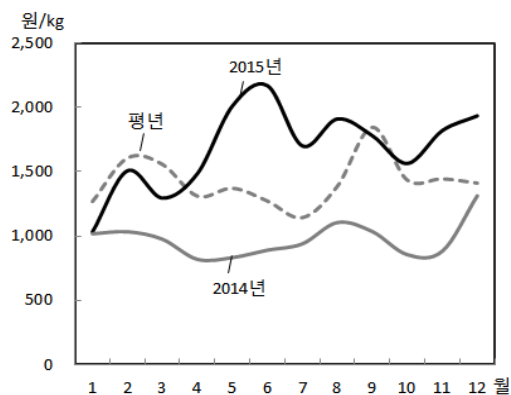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톤, %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	18,634	6,378	1,187.2
2015	18,015	6,072	1,093.9
평년	21,294	6,378	1,358.0
전년 대비	3.4	5.0	8.5
평년 대비	-12.5	0.0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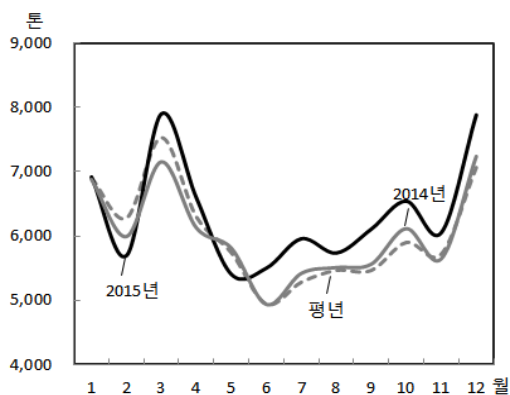
주: 2016년산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통계청.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0년 1월~2014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대파 4/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773원(중품 1,457원)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74%, 24% 높았음.
 - * (금년) 1,773원/kg, (전년) 1,017원, (평년) 1,431원
 - * (10월) 1,565원/kg, (11월) 1,820원, (12월) 1,935원

- 가을대파 주산지인 경기·강원지역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가격은 전년보다 높게 형성됨.
-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과 평년대비 각각 4% 감소하여 산지 포전거래가격이 상승함.

* 전남지역 노지대파 재배면적: (금년) 3,277ha, (전년) 3,400ha, (평년) 3,421ha

-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군은 강풍과 잦은비로 인한 도복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작황이 부진하고, 상품성이 좋지 않음. 상품 출하량 감소로 대파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았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는 겨울대파가 주 출하되는 시기로 전남 신안, 진도, 영광군에서 주로 출하될 예정임.
- 겨울대파 재배면적 감소로 포전거래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폭설로 진도군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월 중순 이후 폭설로 출하가 일부 지연되었던 진도, 신안군 대파가 정상 출하되고 3월부터 영광군 겨울대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출하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폭설과 설 성수기 영향으로 2월 중순까지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3월 이후 대파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보일 전망임.

봄대파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7.8	4.5	3.8	3.9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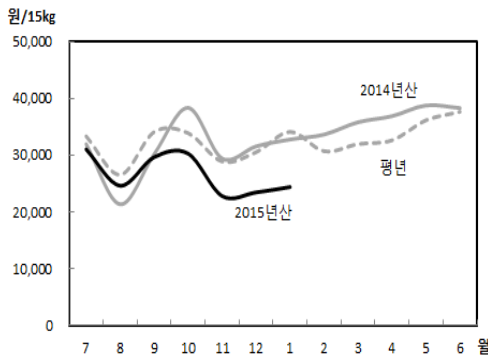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6년 5~7월 출하 예정인 봄대파 정식의향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수도권인근 시설대파 재배면적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5월 이후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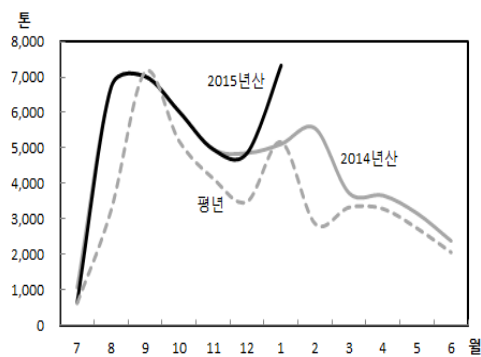
4. 과일⁸⁾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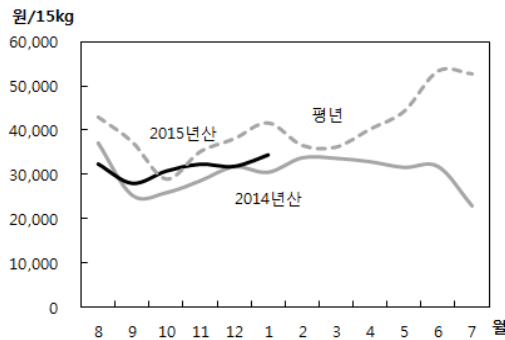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후지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보다 23% 낮은 2만 5천 원(상품 10kg 상자)이었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후지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26% 낮은 2만 4천 원(상품 10kg 상자)이었음.
 - 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10% 많고, 3월 이후에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박지연(zyeo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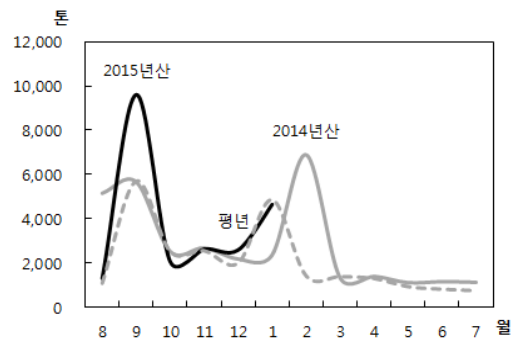
- 2016년 재배면적 전망
 - 2016년 사과 재배면적은 성목면적이 소폭 감소하고 유목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1% 증가한 3만 2천 ha 수준으로 전망됨. 특히 유목면적은 신규식재와 과원갱신뿐만 아니라 포도 폐원신청 농가가 일부 사과로 작목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5% 증가할 전망이다.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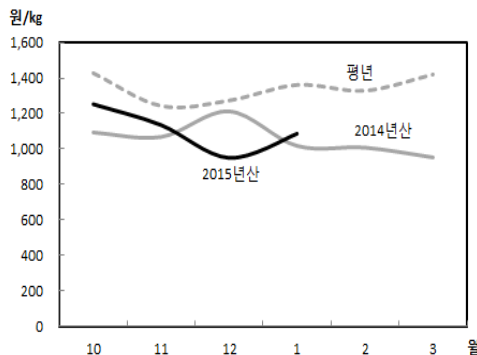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신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적어 전년보다 10% 높은 3만 2천 원(상품 15kg 상자)이었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신고 도매가격은 설 성수기 영향으로 전년보다 16% 높은 3만 5천 원(상품 15kg 상자)이었음.
 - 2월 배 출하량은 설 수요가 2월에 집중되었던 전년보다 61% 적고, 3월 이후에는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재배면적 전망
 - 고령화와 수익성 하락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16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한 1만 2천 ha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강원·경기와 호남지역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2%, 1%, 충청과 영남은 각각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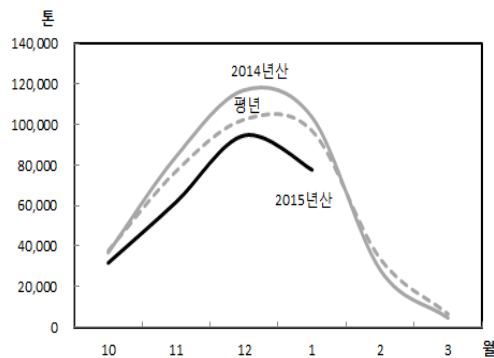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감귤 출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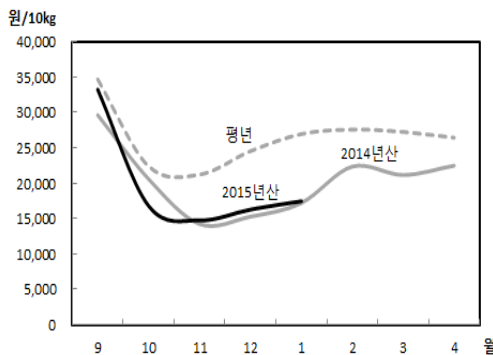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kg당 1,062원으로 전년보다 7% 낮았음.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5%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kg당 1,086원으로 전년(1,018원)보다 7% 높았음. 이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4% 감소하였기 때문임.
 - 2월 이후 출하량도 생산량 하락으로 인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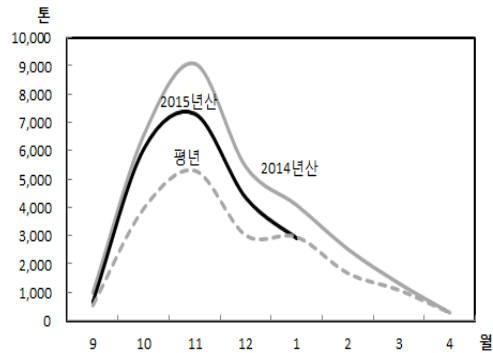
- 2016년 재배면적 전망
 - 2016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1천 ha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노지온주는 전년보다 1% 감소하나, 하우스온주는 비슷하고, 월동온주는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4.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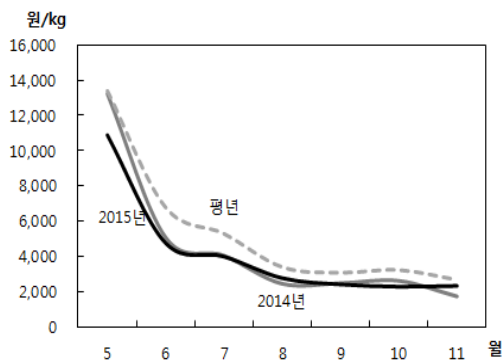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10월 부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9% 낮은 1만 7천 원(상품 10kg 상자)이었음. 이는 사과, 포도 등 대체과일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단감 소비가 부진하였기 때문임.
 - 11~12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5% 높았는데, 이는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전년보다 20% 적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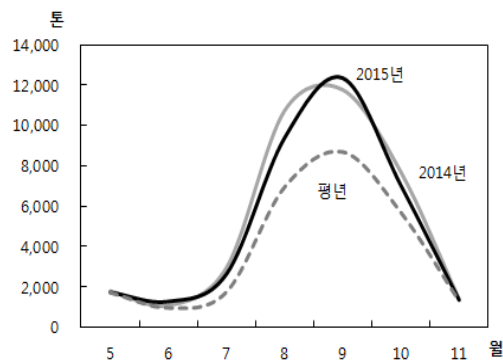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부유 도매가격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2% 상승한 1만 7천 원이었음.
 - 2월 단감 출하량은 설 수요가 2월에 집중되었던 전년보다 8%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3월 이후에는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재배면적 전망
 - 2016년 단감 재배면적은 유목과 성목면적이 각각 1%, 2% 감소하여 전년보다 2% 줄어든 1만 2천 ha 정도로 전망되어 면적 감소세는 201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4.5.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0~14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10~11월 포도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2,223원)보다 6% 낮은 kg당 2,083원이었음. 반입량은 7% 감소하였으나, 품질이 좋지 않았고 소비도 부진하여 전년에 이어 가격 약세가 지속됨.

- 2016년 재배면적 전망
 - 2016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1% 감소한 1만 4천 ha로 전망되며, 작형 별로는 노지 재배면적이 11%, 시설 재배면적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기상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4~2015년 포도 가격이 낮게 형성되자 2015년에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4.6. 복숭아

- 2016년 재배면적 전망
 - 2016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영남·충청지역의 유모계 품종 신규식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5% 증가한 1만 7,539ha로 전망됨.
 - FTA 폐업지원을 신청한 포도 농가의 상당수가 유모계 복숭아로 품목을 전환하여 유목면적은 전년보다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전환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품종별 재배면적은 천도계가 전년보다 2%, 유모계는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두 품종 모두 만생종보다 조·중생종 위주의 증가가 예상됨.

2016년 복숭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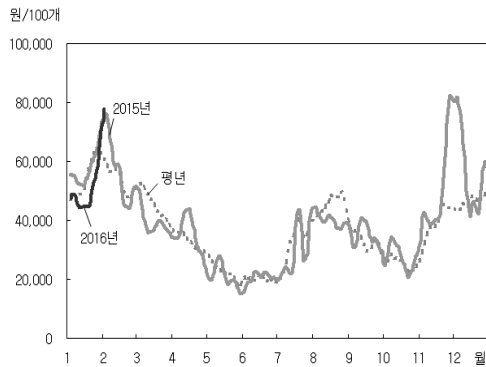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6년	6,347	11,192	17,539
2015년	5,893	10,811	16,704
증감률	7.7	3.5	5.0

자료: 통계청(2015년),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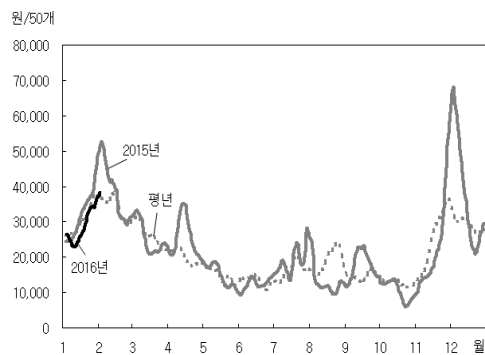
5. 과채⁹⁾

5.1. 오 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1~2015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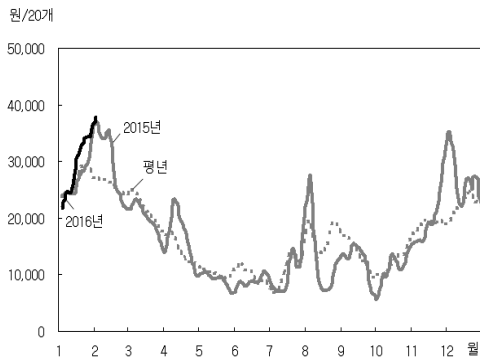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0월 2만 7,400원, 11월 5만 1,100원, 12월에는 5만 7,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4만 5,400원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17%, 23% 높았음.
- 백다다기오이 4/4분기 반입량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확대로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잦은 비 등 기상 악화로 생육이 불량하여 전년보다 5% 적었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0월에는 1만 400원, 11월 2만 3,600원, 12월은 3만 8,400원이었음. 기상 악화로 12월 가격은 상승했으나, 10~11월은 반입량 증가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4/4분기 평균가격은 2만 4,1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낮았음.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병훈(postino@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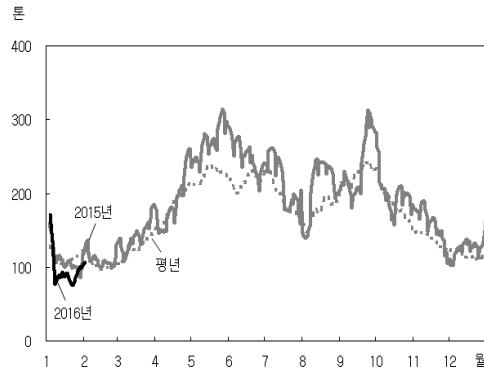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주산지를 중심으로 폭설과 기온 저하가 이어져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겨울철 이후 형성된 높은 가격으로 소비가 부진하여 1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15% 낮은 4만 9,600원이었음.
 - 2~3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산지인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출하면적이 크게 확대되어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백다다기오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동반 하락하여 작년보다 14% 낮은 2만 8,300원이었음.
 - 호남지역 재배면적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취청오이 2~3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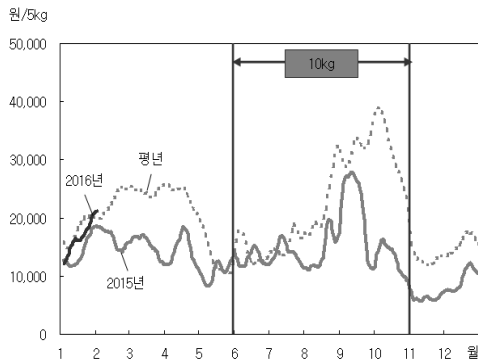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1~2015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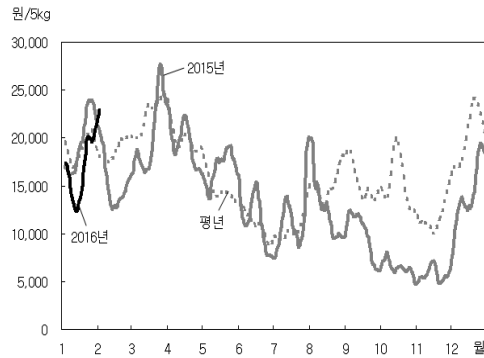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0월 1만 1,400원, 11월 2만 200원, 12월에는 2만 7,100원이었음. 10월 가격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11~12월에 계속된 기상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여 4/4분기 평균가격은 1만 9,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 높았음.
 - 4/4분기 반입량의 경우 11월부터 지속된 강우로 일조가 부족해지는 등 기상여건이 다소 불안정하였으나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시설재배면적 증가 및 가락시장으로의 반입량 집중으로 전년보다 5% 많았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일조시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반입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8% 높은 상품 20개에 2만 9,300원이었음.
 - 2~3월에는 영남지역의 출하가 지속되고, 충청지역 재배면적도 확대되어 기상여건이 없는 한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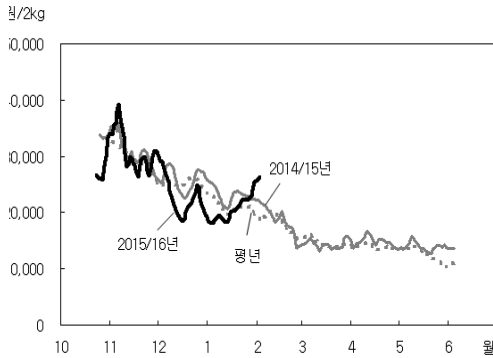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1~2015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에는 9천 원, 11월은 6,150원, 12월은 9,5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9,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 낮았음.
 - 일반토마토 4/4분기 반입량은 기상여건 호조로 강원지역의 출하가 지속되어 전년보다 6% 많았음.
 -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이 6,400원, 11월 5,700원, 12월에는 1만 4천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8,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낮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3kg 상자에 10월에는 8,900원, 11월 8,500원, 12월은 1만 1천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9,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낮았음.
 - 방울토마토 4/4분기 전체 반입량은 작년보다 10% 많았음. 방울토마토 전체 재배면적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기상여건 호조로 강원지역의 출하가 지속되어 출하량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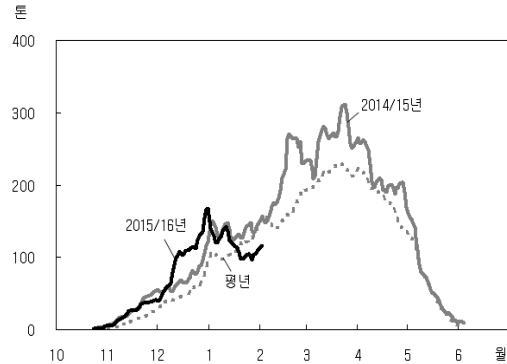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14% 높은 1만 6천 원(상품 5kg 상자)이었음.
 - 2~3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주 출하지에서의 면적 변화가 크지 않겠으나, 겨울철 기상여건 악화로 작황이 좋지 않아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월 원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소비 부진 등으로 작년보다 18% 낮은 1만 6,300원(상품 5kg 상자)이었음.
 - 1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도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21% 높은 1만 8,200원(3kg 상자)이었음.
 - 2~3월 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대추형 재배농가가 원형으로 전환되어 원형은 작년보다 증가, 대추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4.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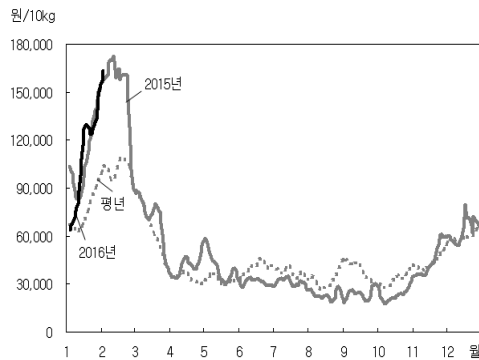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1~2015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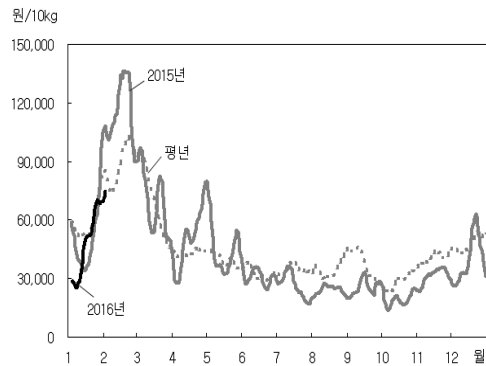
- 2015년 4/4분기 동향
 -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0월에는 2만 9,700원, 11월 3만 600원, 12월에는 2만 2,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2만 7,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 낮았음.
 - 딸기 4/4분기 반입량은 전년보다 14% 많았음. 이는 안정적인 딸기 가격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딸기 도매가격은 정식면적 확대로 출하량 늘어 작년보다 11% 낮은 상품 2kg 상자에 2만 400원이었음.
 - 2~3월 딸기 출하량은 재배면적 확대로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청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녹광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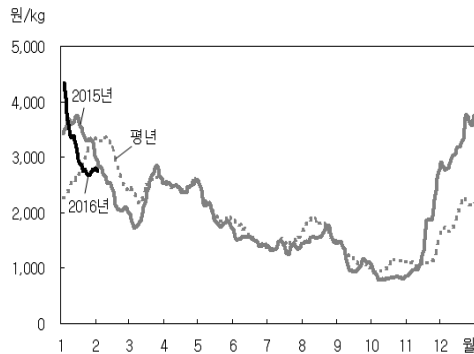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1~2015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청양풋고추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2만 3,300원, 11월 4만 4,600원, 12월에는 6만 6,5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4만 4,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낮았음.
 - 청양풋고추 재배면적이 증가한 강원과 호남지역에서 출하가 이어지고, 첫 출하가 시작되는 영남지역에서도 정식면적이 확대되어 4/4분기 반입량은 전년보다 18% 많았음.
 - 녹광풋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에는 1만 9,400원, 11월 3만 1,400원, 12월은 3만 9,600원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3만 1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 낮았음.
 - 녹광풋고추의 경우 강원지역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북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작황이 양호하여 4/4분기 반입량은 전년보다 20%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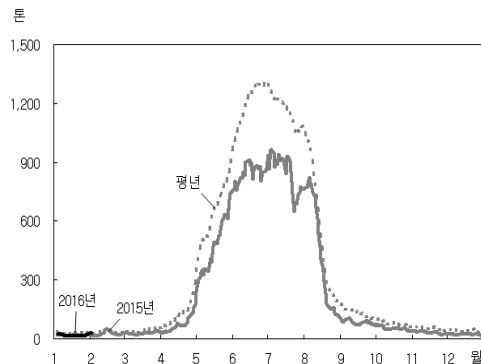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청양풋고추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에 작년보다 3% 낮은 10만 8,900 원이었음. 녹광풋고추도 상품 10kg 상자에 작년보다 11% 낮은 4만 7,200 원이었음.
 - 청양풋고추 1월 반입량은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흐린 날이 지속되는 등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11% 적었음. 녹광풋고추도 경남 진주와 창녕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오이맛 등으로 품종 전환한데다 기상 여건 악화로 작년보다 20% 감소하였음.
 - 2~3월 청양풋고추 출하량은 경남 밀양과 진주 등 주산지의 재배면적 증가로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녹광풋고추는 영남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5.6.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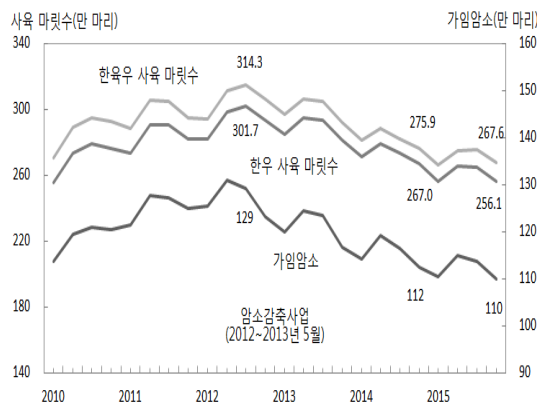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11~2015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5년 4/4분기 동향
 -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0월 840원, 11월 1,550원, 12월에는 3,240원이었음. 10월 가격은 대체품목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소비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낮았으나, 11~12월 반입량 감소가 심화되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4/4분기 평균가격은 1,880원으로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3%, 34% 높았음.
 - 4/4분기는 영남지역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나, 고령화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가 이어지고 12월에 주산지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작황이 좋지 못해 반입량이 전년보다 14% 적었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수박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kg에 3,140원으로 작년보다 10% 하락하였으며, 반입량은 7% 줄었음. 반입량이 작년보다 적었음에도 가격이 낮았던 것은 지속된 강추위로 인한 소비 부진이 심화되었기 때문임.
 - 2~3월 출하량은 영남지역의 정식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6. 축산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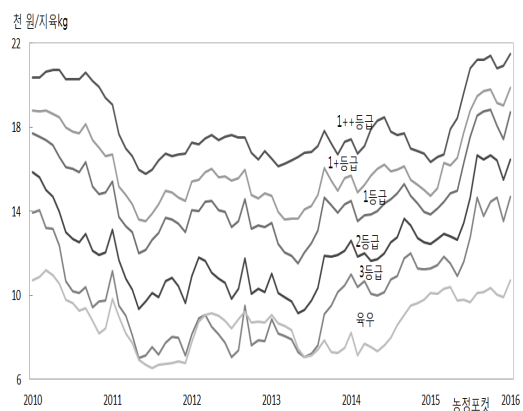
6.1. 한육우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5년 4/4분기 동향

- 1세 이상 마릿수 감소로 2015년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275만 마리)보다 2.8% 감소한 268만 마리였음(전년 동월 276만 마리보다 3.0% 감소).
 - * 2015년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68만 마리, 한우 256만 마리, 육우 11만 5천 마리
 - * 가임암소 사육 마릿수 110만 마리(2014년 동월 112만 마리)
- 추석 이후에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었으나 한우의 날 행사(11월 1일) 등으로 2015년 4/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3/4분기 18,297원/지육kg보다 1.0% 하락하는데 그친 18,116원임(전년 동기 14,379원보다 26.0% 상승).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lhw0906@krei.re.kr), 김형진(junjang00@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정세미(wjdtpl55@krei.re.kr), 박근아(pka@krei.re.kr), 이지혜(jhl@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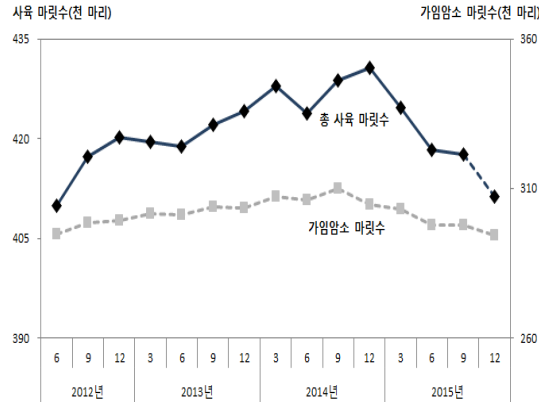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설 수요 증가로 올해 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015년 12월보다 7.4% 상승한 18,714원이었음(전년 동월 13,845원보다 35.2% 상승).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 12월 268만 마리보다 3.6% 감소한 258만 마리로 전망됨(전년 동월 266만 마리보다 3.0% 감소).
 - 2~3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2015년 4/4분기보다 6% 내외 하락한 16,000~18,000원으로 전망됨(전년 동기 14,303원보다 19% 내외 상승).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2015년 12월(A)	2016년 3월(B)	B/A
사육 마릿수	268만 마리	258만 마리	-3.6%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10~12월 18,116원	2~3월 16,000~18,000원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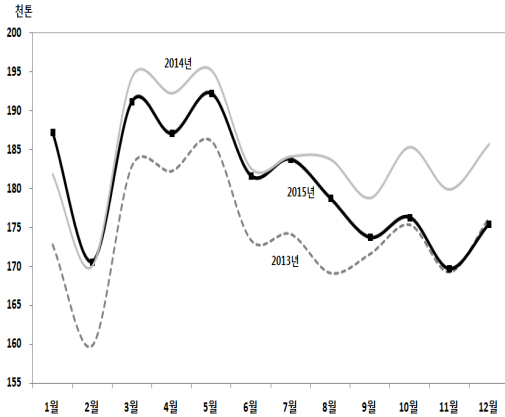
6.2. 젓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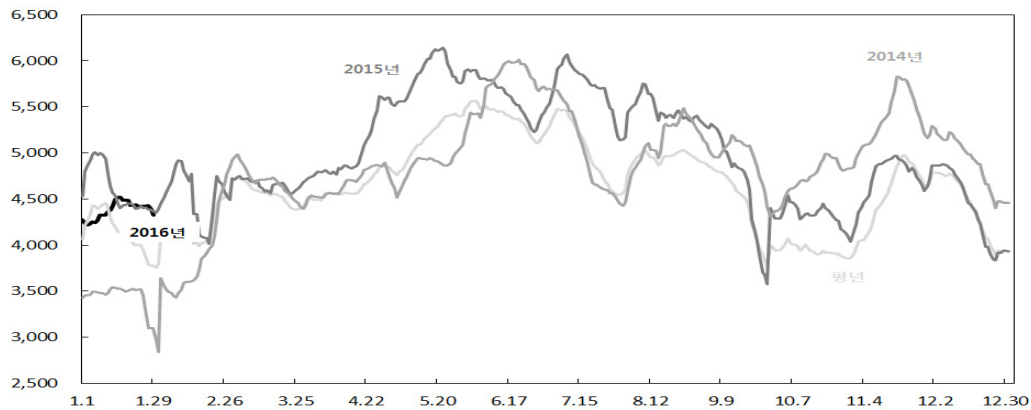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5년 4/4분기 동향
 - 분유재고량 급증으로 원유 감산 대책이 시행되어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12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41만 1천 마리였음. 가임암소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29만 4천 마리임.
 - 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약 52만 2천 톤임. 4분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4% 감소한 34만 3천 톤이었음.
 - 2015년(12월 기준) 분유재고량은 2014년보다 10.1% 증가한 2만 343톤임.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4.3~5.2% 감소한 52만 1천~52만 6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탕박 지육가격(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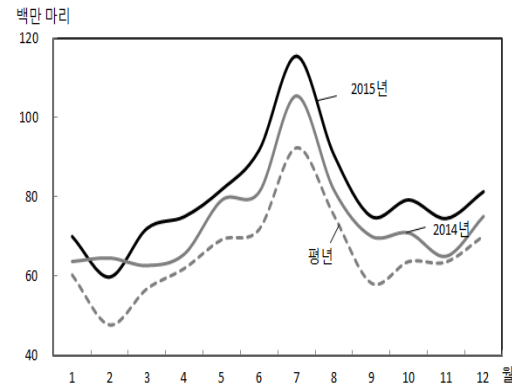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5년 4/4분기 동향
 - 돼지가격 호조로 후보돈 입식이 증가함. 2015년 12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2.2% 증가한 95만 8천 마리였음. 모돈 사육 마릿수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1% 증가한 1,019만 마리임(통계청).
 - 사육 마릿수 증가로 4/4분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6.9% 증가한 442만 마리였음(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2015년 4/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5,005원)보다 10.9% 하락한 탕박 기준 지육 kg당 4,461원이었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모돈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는 전년보다 5.0% 증가한 414만 마리로 전망됨.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2016년 1/4분기 돼지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월 4,396원, 2월 4,200~4,500원, 3월 4,300~4,6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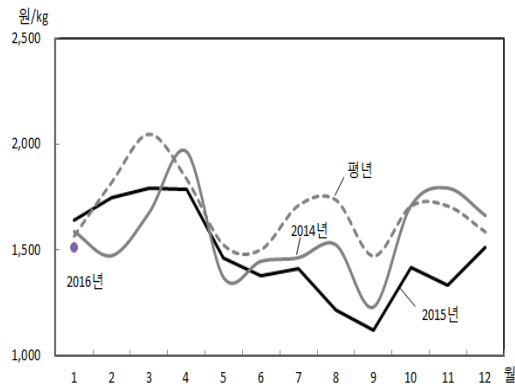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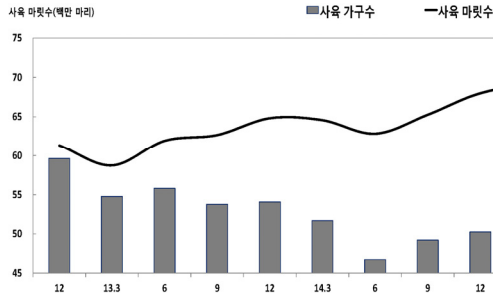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2015년 4/4분기 동향
 - 2015년 4/4분기 육용 종계 입식 마릿수는 상반기 원종계 입식지연으로 전년 동기기간보다 30.4% 감소하고, 육용 종계 도태 마릿수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4/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기기간 대비 11.4% 증가한 2억 3,514만 마리임.(2015년 총 도계 마릿수 전년보다 9.2% 증가한 9억 6,696만 마리)
 - 수입 닭고기 수요감소와 재고증가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 증가폭이 감소하여 4/4분기 검사실적 기준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기간보다 39.0% 감소한 1만 6,463톤이었음.(2015년 총 닭고기 수입 전년 대비 20.2% 감소한 9만 9,667톤)
 - 도계 마릿수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2015년 4/4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기간 대비 17.5% 하락한 1,419원/kg임.(2015년 평균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5.7% 하락한 1,484원)

- 2016년 1/4분기 전망
 -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도계 마릿수도 전년 동분기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4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8.71% 증가한 2억 2,000만 마리로 예상됨.
 - 2015년 종계 입식은 원종계 생산연장과 종계 직수입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700만 2천 마리였음. 종계 입식이 2015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2016년 상반기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3월 닭고기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금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어, 육계 산지가격이 원가이하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1월: 1,513원/kg, 2월: 1,100~1,300원/kg, 3월: 1,200~1,400원/kg)
- 대책 방향
 - 업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함. 이와 더불어 닭고기 소비촉진에 힘써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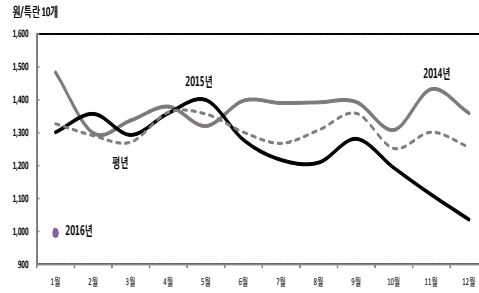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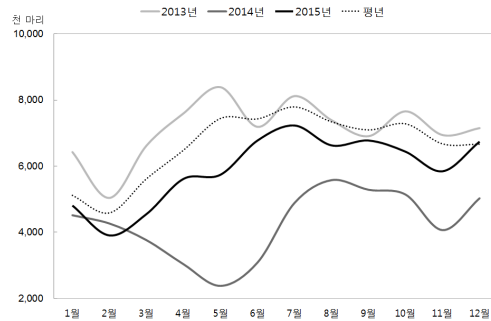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1~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 2015년 4/4분기 동향
 - 2015년 4/4분기 산란 가담 신계군 및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릿수 증가로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6.2% 증가한 7,188만 마리였음.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은 995만 마리로 전년보다 17.0% 감소하였으나, 산란 성계도태는 전년보다 56.5% 증가한 942만 마리였음.
 - 계란 생산량 증가로 4/4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8.5% 하락(평년 대비 12.3% 하락)한 1,113원(특란 10개)이었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6개월령 이상 산란계 마릿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계란 공급량 증가로 1/4분기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950~1,05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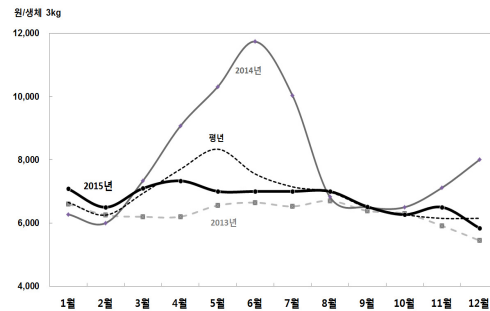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0~15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5년 4/4분기 동향
 - 종오리 증가로 12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9.6% 증가한 977만 마리이며, 2015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6.3% 증가한 968만 마리였음.
 - 육용오리 입식 증가로 4/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 대비 33.7% 증가한 1,902만 마리임.
 - 오리 도압 마릿수 증가로 오리 생체(3kg)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3.9% 하락한 6,202원이었음.
- 2016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종오리 입식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2만 9천 톤으로 전망됨.
 - 반면 가정 내 오리고기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부진으로 인하여 1~2월 생체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5,000~5,500원/3kg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 ①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 ②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
- ③ 최근 소비자의 과일 구매행태 분석과 시사점

* 1년 소비자 및 생산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품목의 수급 동향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김동원**, 박혜진***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농업·농촌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보는 도시민은 66.7%로 긍정전해 ‘뚜렷’
 - －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각각 86.9%, 88.4%)이며,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각각 58.9%, 74.7%)하고 있다고 응답함.
 - － 농업인 41.9%, 도시민 66.7%가 농업·농촌을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으로 본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더 긍정적임. 도시민 중 부정적인 의견은 6.9%에 그쳐 긍정적인 견해가 뚜렷이 우세함.
-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인식에 대한 우호적 인식도 증가
 -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도시민 10명 중 7명이 ‘가치가 많다’(70.5%)고 응답하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하였음.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4.3%p 증가하였음. 다원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은 고연령층과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처럼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은 2009년 58.6%, 2012년 62.0%에서 2015년에 처음으로 70%대를 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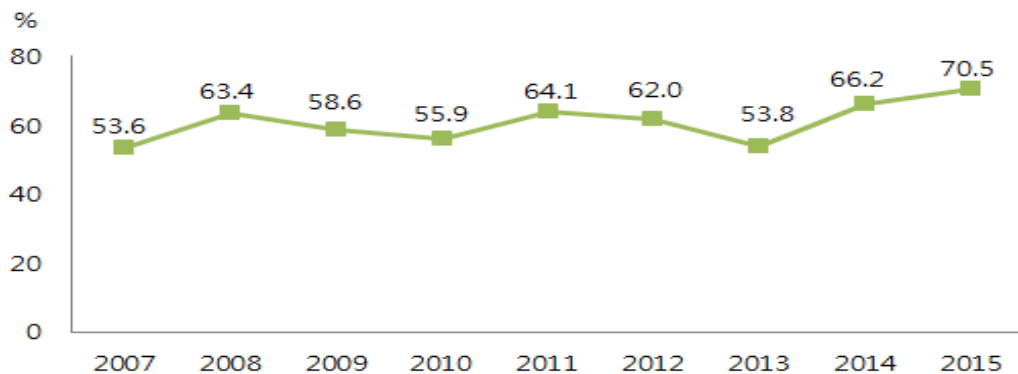
* 본고는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dongweo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무원(frog78@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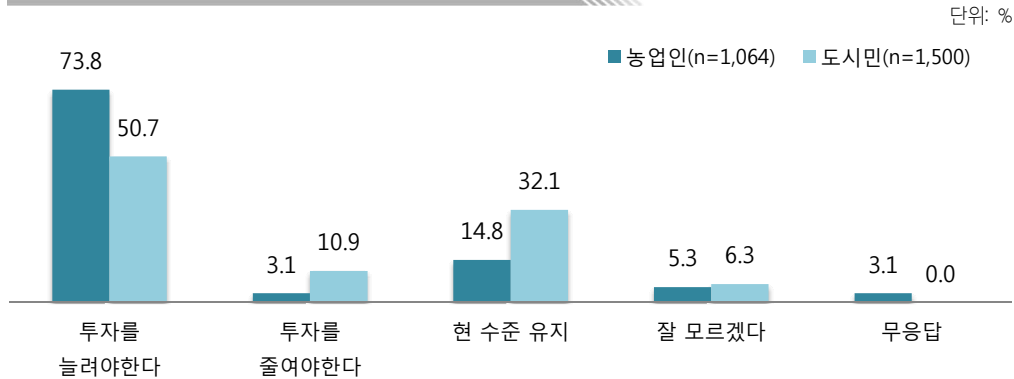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서는 도시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59.5%)고 응답하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2.7%로 나타남. 세금 추가 부담에 대해 '찬성한다'는 도시민 의견이 지난해(50.9%) 대비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의견은 2007년 39.1%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인식



- 도시민 과반수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 지지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농업인은 10명 중 7명(73.8%)이며, 도시민은 절반이(50.7%)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농업인 3.1%, 도시민 10.9%에 그쳐 투자 확대에 대한 찬성비율이 뚜렷이 높았음.
 -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납세자인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긍정적'(59.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1%에 불과함.
 -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액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61.9%)고 응답하였으며, '반대'는 7.8%로 나타났음. '찬성한다'는 응답이 작년(54.2%) 대비 7.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농촌부문 투자에 대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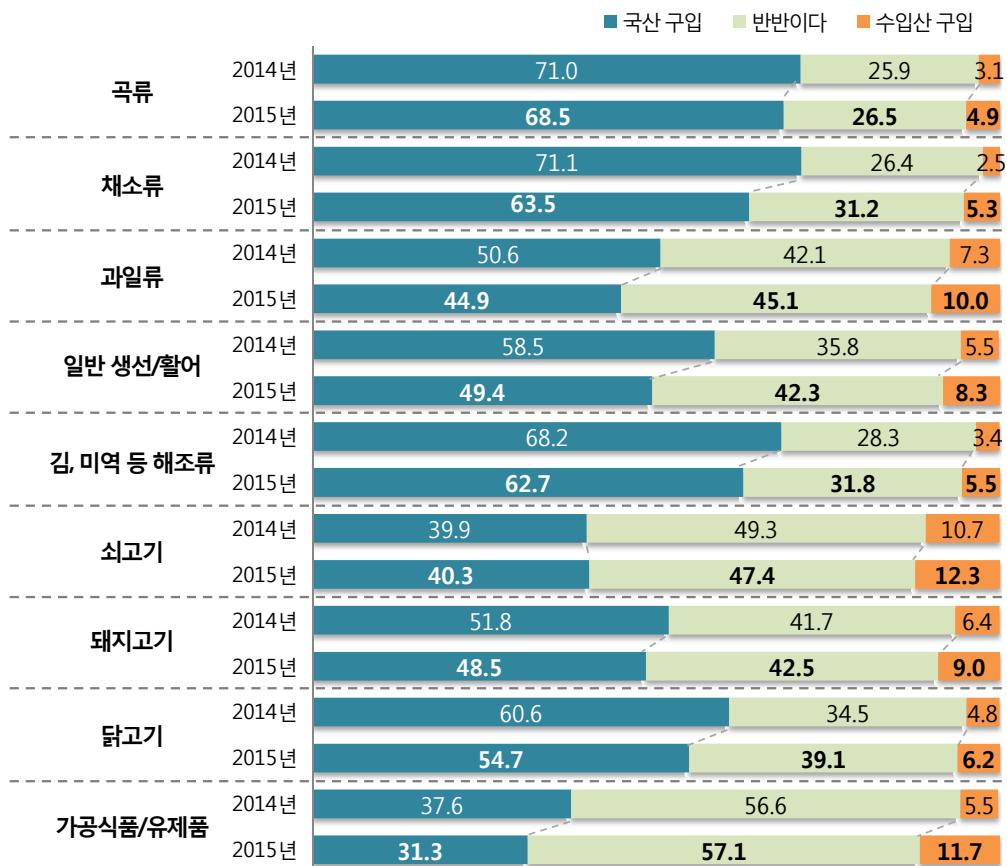
2.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자 인식 변화

-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감 줄고, 국산농산물 구매 의향은 감소 추세
 -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도시민 38.6%가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수입농산물에 대해 인식은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구매한다’(25.7%)는 의견과 ‘수입농산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구매하지 않는다’(25.2%)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 수입농식품이 국내산보다 저렴하면 수입산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이 조사 대상 9개 모든 품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함. 수입농식품 구매 의향은 쇠고기(12.3%), 가공식품/유제품(11.7%), 과일류(10.0%) 등이 10%를 넘었으며, 가공식품과 채소류의 경우 수입품 구매 의향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함. 국산과 수입산 구매 의향이 ‘반반’이라는 응답은 가공식품/유제품(57.1%), 쇠고기(47.4%), 과일류(45.1%), 돼지고기(42.5%) 순으로 높아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곡류와 채소류, 해조류의 경우 도시민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수입산 농식품이 저렴해도 국산을 구입’(각각 68.5%, 63.5%, 62.7%)할 것이라고 응답해 국산 구매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하지만, 전년에 비해 국산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생선/활어 9.1%p, 채소류 7.6%p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쇠고기를 제외한 8개 품목에서 감소하였음. 쇠고기도 국산 구매 의향이 전년보다 0.4%p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40.3%에 그침. 국산구매 의향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가공식품(31.3%), 쇠고기(40.3%), 과일류(44.9%), 돼지고기(48.5%), 생선/활어(49.4%)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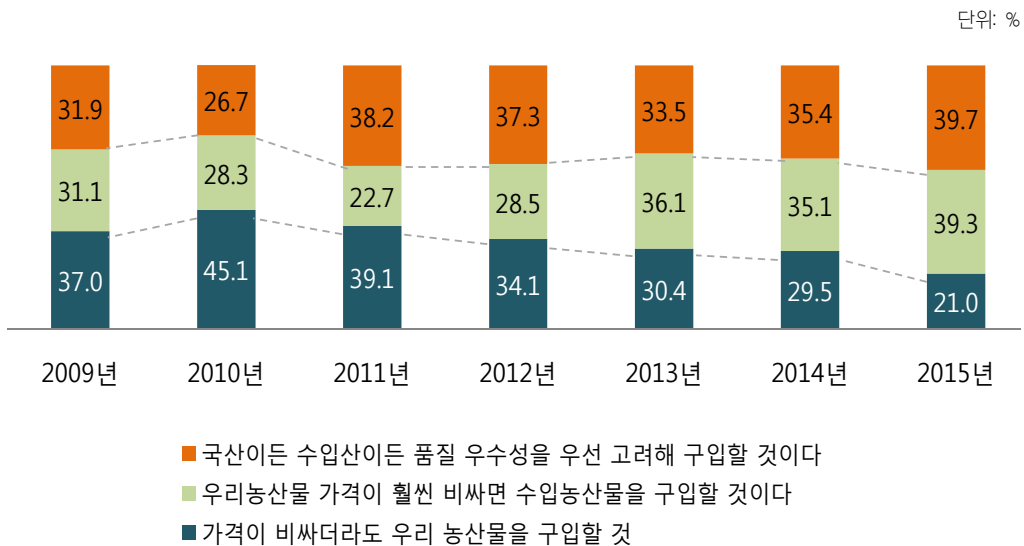
수입 농식품이 저렴할 때 국산농식품 구매 의향

단위: %



- 도시민,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 약화 추세 뚜렷
 -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되면 농산물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국산이든 수입품이든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는 의견이 39.7%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39.3%),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21.0%) 순으로 나타났음.
 -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은 2009년 37.0%, 2012년 34.1%, 2014년 29.5%, 이번 조사에서 21.0%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음.
 -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도시민 31.9%가 ‘품질 인증 확대’를 꼽았음. 다음으로 ‘수입산과 가격 경쟁력 확보’(24.5%), ‘직거래 등 다양한 판매처 개척’(17.9%), ‘원산지 표시 확대’(17.5%) 순으로 응답하여 품질에 가장 큰 관심으로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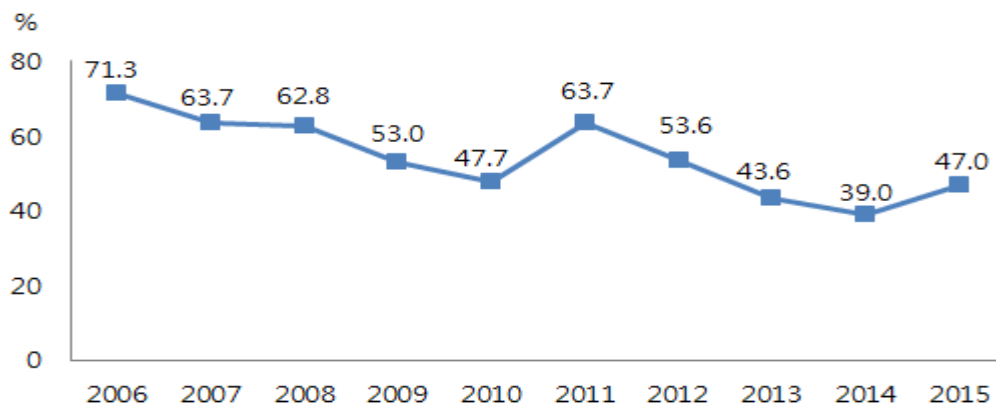
시장개방 확대 시 농산물 구매 의향



3.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정책 수요

-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을 이유로 귀농·귀촌 의향 증가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47.0%로 전년보다 8.0%p 증가했으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48.5%로 전년보다 6.0%p 줄었음. 계층별로는 고연령층,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 농촌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으로 가고 싶다는 의향은 2013년 43.6%, 2014년 39.0%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함.
 - 귀농·귀촌을 원하는 주된 이유로 10명 중 6명 정도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58.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16.2%로 조사되었음.
 - 반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7.4%), '농업을 경영해 안전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6.4%),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5.2%) 등은 10% 이하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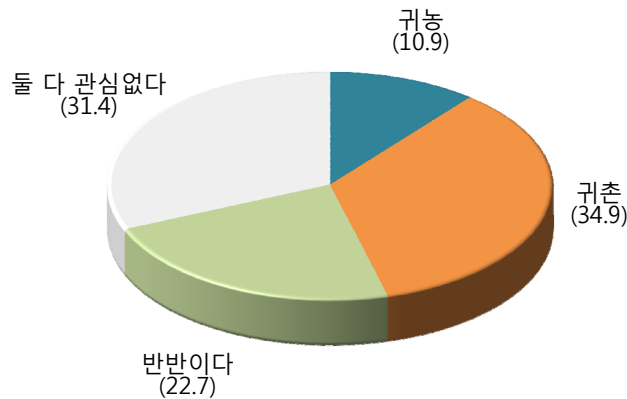
도시민의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비율



- 귀농보다 귀촌에 3배 더 관심 있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수입원’ 꼽아
 - 귀농·귀촌 중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4.9%가 ‘귀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둘 다 관심 없다’는 3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반반이다’(22.7%), ‘귀농’(10.9%) 순으로 조사되었음. 저연령층, 농촌 거주 경험 없는 경우, 농촌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 귀농·귀촌 ‘둘 다 관심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60.3%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마음의 준비’(35.3%), ‘이주에 필요한 자금’(29.8%),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2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귀농·귀촌 중 더 관심이 있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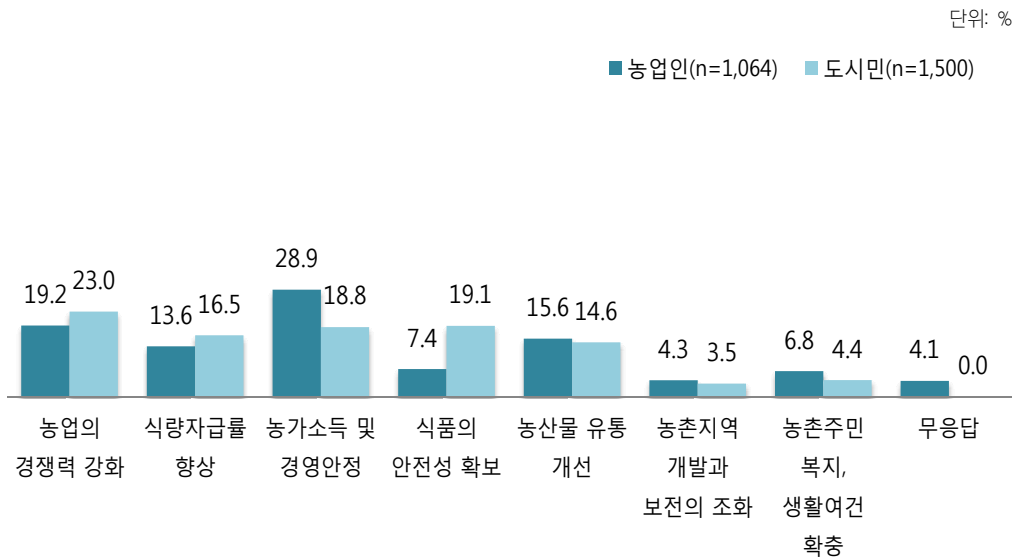
단위: %



- 도시민, 농촌에서 지역축제와 주말 농장 등 다양한 체험활동 원해
 -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도시민 응답자의 25.3%는 ‘지역축제 참여’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주말농장’(20.3%), ‘전통테마마을 체험’(19.2%), ‘농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13.8%), ‘농촌관광 체험’(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26.8%가 ‘숙박과 취사 불편’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통 불편’(23.1%), ‘체험활동 부족 또는 흥미 없음’(14.8%), ‘비싼 요금’(14.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농업예산 배분 시 농업인은 소득안정 도시민은 경쟁력 제고에 우선 배정 원해
 - 농업·농촌의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인구 고령화'(각 26.3%, 32.7%), '농가소득 불안정'(각 24.2%, 20.5%)을 꼽았음. 다음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각 20.5%, 19.4%)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농업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해 농업인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28.9%로 가장 많이 꼽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19.2%), '농산물 유통 개선'(15.6%) 등의 순으로 응답함. 도시민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23.0%), '식품의 안전성 확보'(19.1%),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18.8%) 순으로 응답함.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위 인식



- 정책수요로 농업인은 피해보상, 도시민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주문
 - 향후 농업·농촌·농식품 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은 'FTA에 따른 농업 피해보상 및 경쟁력 강화'(49.9%)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 등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체계 마련'(43.9%)을 꼽았음.

- 도시민은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40.6%로 가장 많이 꼽았고, ‘새로운 기술/생산방식 등의 연구개발’이 36.7%로 뒤를 이었음
- 농업인들은 올해 농식품 분야 이슈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으로 ‘농산물 가격’(17.2%)을 꼽았으며, ‘통상협상’(14.8%), ‘농촌 일손 부족’(12.5%), ‘창조경제(농업의 6차 산업화)’(10.5%) 등의 순으로 응답함.

4.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촌생활 인식

- 농업인 직업만족도 56점으로 국민 평균보다 12점 낮아
 - 농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는 ‘만족한다’(높음)는 응답이 20.6%로 ‘불만이다’(낮음)는 응답 32.8%에 비해 12.2%p 낮게 나타나 지난해와 유사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2점으로 일반 국민 평균(68.2점,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보다 낮음.
 -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2.1%로 ‘불만이다’(30.0%)에 비해 7.9%p 낮았고,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불만이다’는 응답이 과반(53.8%)으로 높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함.
 -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농업을 권유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농업인의 과반이 ‘자녀의 뜻대로 하겠다’(57.8%)고 응답하였음.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29.6%였으며,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협조하겠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남. 자녀에게 농업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1978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었음. ‘자녀에게 농업을 권장하고 협조하겠다’는 응답은 과수농가(1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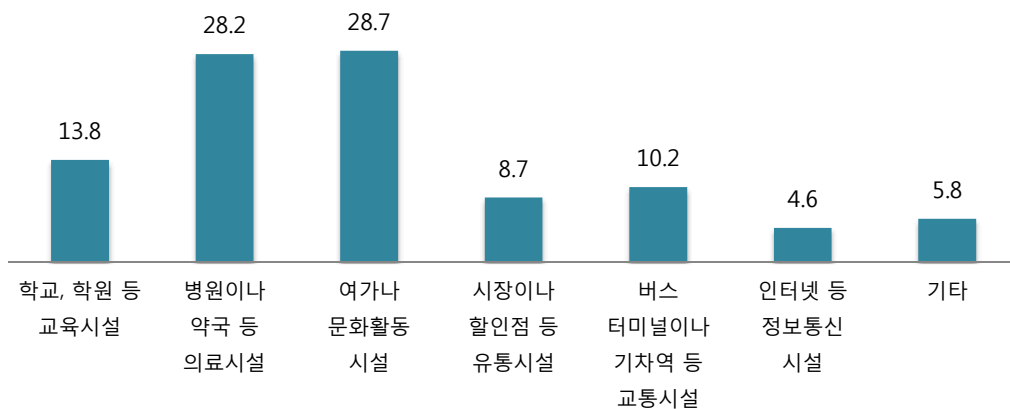
구 분	KREI(농경연) 2015년 조사결과		KRIVET(직능원) 2014년 조사결과	
	평균	① 100점 환산	평균	② 100점 환산
① 전반적 만족 정도	2.81	56.2	3.41	68.2
②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2.88	57.6	3.40	68.0
③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2.34	46.8	2.98	59.6

- 농업인 행복지수는 67점으로 높은 편이며, 버킷리스트 1순위는 ‘세계여행’
 - 농업인 스스로가 느끼는 5개 분야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67점으로 2013년 조사결과와 같은 행복도를 나타냄. 분야별로는 ‘가정생활’(77점)과 ‘사회생활’(70점) 행복도가 70점을 넘었으며, 다음으로 ‘주위 친지와의 관계’(68점), ‘건강상태’(63점), ‘재정상태’(55점) 순으로 나타나 재정상태에 대한 행복도가 가장 낮았음.
 - 2015년 12월 동아일보와 딜로이트컨설팅은 업종별 행복지수 조사결과 농업인이 63점으로 타업종보다 상대적으로 행복지수가 높다고 밝힘.
 - 농업인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1순위는 ‘세계여행’(12.8%), ‘가족여행’(7.8%), ‘전국 일주’(3.4%) 등 ‘여행’이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건강한 삶’(3.1%)과 ‘사회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3.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농촌생활은 만족도가 지속 상승해 불만족보다 16.4%p 높아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7.4%로 ‘불만이다’는 응답(21.0%)에 비해 16.4%p 높게 나타났으나, 지난해보다는 6.4%p 낮음. 만족한다는 응답은 대농, 연평균소득 2천만 원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농촌생활 만족도는 2005년 9.5%에서 시작해 2010년 22.7%, 2012년 32.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농촌생활 불만족 이유로는,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33.6%),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20.2%),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17.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농촌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여가/문화활동 시설’ 꼽아
 -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25.3%로 ‘불만족한다’(18.9%)에 비해 6.4%p 높게 나타남.
 - 농업인은 거주지역의 생활여건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여가나 문화활동 시설’(28.7%),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28.2%)을 꼽았음. 이어서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13.8%),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등 교통시설’(10.2%) 등의 순으로 응답함.

농촌지역 생활여건 불편 사항

단위: %



5. 시사점

- 농업인 직업만족도 56점으로 국민 평균보다 12점 낮아
 -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도시민 10명 중 7명 긍정,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에도 찬성하는 비율이 뚜렷이 상승함.
 - 농업·농촌은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보는 도시민은 각 74.7%, 66.7%에 달함.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인정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도 증가함.
 - 농업·농촌 투자 확대에 도시민 과반수가 찬성했으며, 농업인 세제혜택과 농촌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뚜렷이 증가함.
 - 단, 농업인의 경우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성장 동력 가능성 등에 대해 도시민보다 긍정비율이 20%p 내외로 낮게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로 생계보다는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라는 응답이 많음.
 -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목적을 고려하고 귀농보다 귀촌 수요가 3배나 더 많은 것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귀농·귀촌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층은 젊고 농촌 거주 경험이 없으며, 농촌에 가족이 없는 경우인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민은 지역축제 참여, 주말농장 등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원하고 있어 이런 수요를 고려한 유인책도 요구됨. 또 농촌관광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숙박과 취사' 시설을 꼽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있는 반면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지속 하락해 대책이 요구됨.
 - 도시민 40% 정도가 수입농산물에 거부감이 없고, 25% 정도는 수입농산물을 구매한다고 응답함. 곡물 등 9개 품목의 수입농산물 구매 의향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고, 국산농산물 구매 의향은 대부분 감소함.

- 특히, 쇠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 가공식품, 생선 등은 국산 구매 의향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수입품과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반면에 곡류와 채소류, 해조류 등은 국산 구매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음.
-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국산 구매 충성도는 2009년 37.0%에서 지속 감소, 이번 조사에서는 21.0%로 떨어져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함.
- 정책수요로 농업인은 소득안정, 도시민은 경쟁력 제고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주문
 - 농업예산 배분 우선순위로 농업인은 ‘경영안정’, 도시민은 ‘경쟁력 제고’를 꼽아 견해 차이가 있음. 정책은 농업인이 피해보상, 도시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인 직업만족도와 행복도는 정체 상태이며, 가장 큰 원인으로 재정상태를 꼽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농촌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25% 수준에 머물고, 여가/문화 활동과 의료시설이 확충되기를 바라고 있어 복지시설 확충에 관심이 필요함.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

우병준**, 김형진***

1. 닭고기 수급 현황 및 전망

1.1. 닭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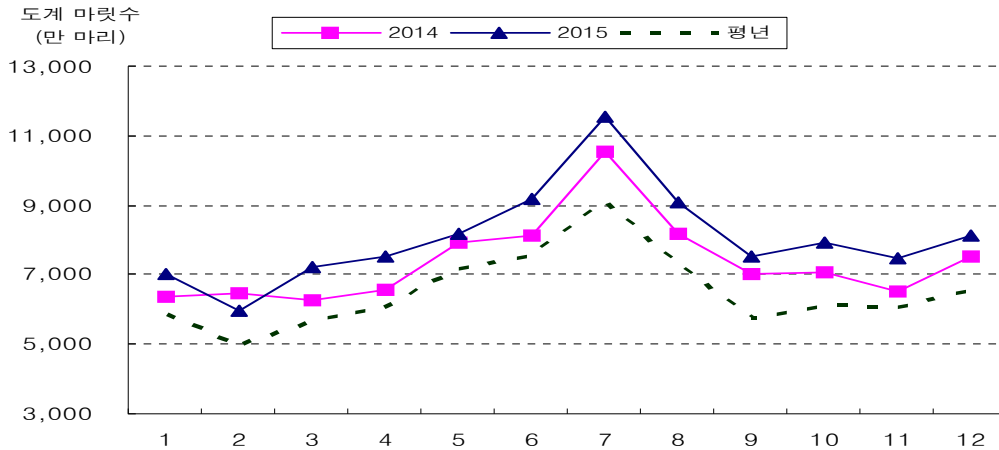
- 국내 도계 마릿수는 1990년 1억 4,754만 마리에서 연평균 7.8% 증가하여 2014년 8억 8,551만 마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계 마릿수는 2010년에 7억 마리, 2014년에 8억 마리 돌파 후 불과 1년 만인 2015년에 사상 최대 수준인 9억 마리를 넘어서 최근 5년간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 기간 대비 9.2% 증가한 9억 6,696만 마리로 2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의 도계 마릿수가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특히 도계 마릿수가 연중 가장 많은 7월의 경우 2014년에 1억 550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2015년에 1억 1,552만 마리를 기록하여 다시 최고치를 경신함.

* 본고는 농정포커스 제 118호, 「닭고기 수급불균형과 파급영향」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bjwo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junjang00@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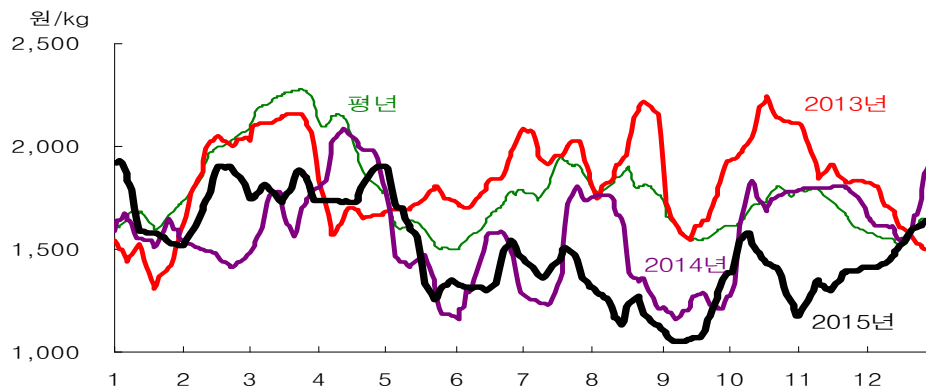
2015년 도계 마릿수 동향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닭고기 공급 증가로 2015년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7% 하락, 평년보다는 11.9% 하락한 1,484원/kg임. 연중 육계 산지가격이 가장 높은 7~8월 가격이 1,500원 이하로 형성되었으며, 9월에는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1,118원을 기록하였음.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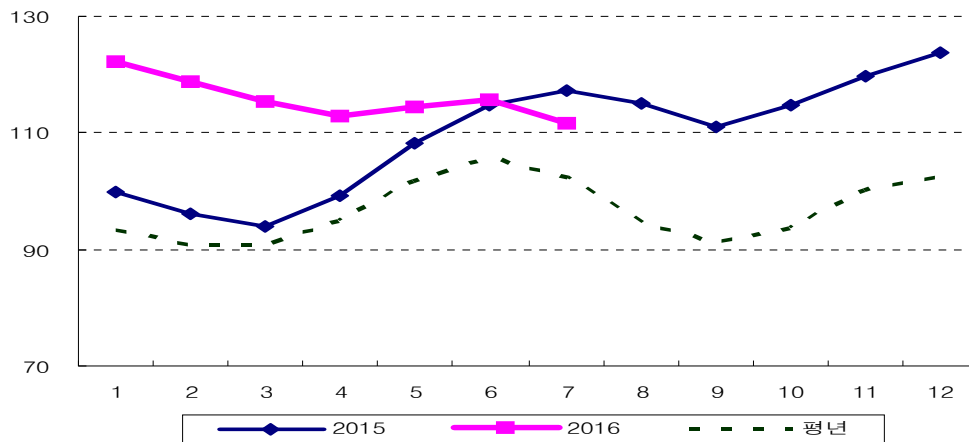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1.2. 2016년 닭고기 수급 전망

- 육용 종계 입식 자료를 이용하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5년 11~12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보다 평균 17.1%, 평년보다는 20.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1~7월 생산 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 기간에 비해 평균 12.1%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1~3월 잠재력 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22.3%, 23.6%, 22.7%, 평년 대비 각각 31.3%, 31.0%, 27.0% 높게 나타남.
 -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국내 실용계 병아리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
(2015년 1월 = 100)



주: 평년은 2010~14년 5개년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6년 1~8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한 6억 8,946만 마리로 전망됨. 특히 2~3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여름철 성수기인 6~8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년에 비해서도 평균 20.5%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2015년과 같은 공급 과잉이 예상됨.

2016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전망

단위: 만 마리,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2016년(A)	7,192	6,706	8,046	8,026	8,435	9,222	11,270	8,812	68,946
2015년(B)	7,003	5,981	7,206	7,503	8,185	9,182	11,552	9,062	65,674
2014년	6,373	6,460	6,270	6,561	7,918	8,123	10,550	8,175	60,430
평 년(C)	6,098	5,448	5,943	6,284	7,521	7,819	9,700	7,284	56,097
(A)/(B)	2.7	11.4	12.1	11.6	7.0	3.1	0.4	-2.8	5.0
(A)/(C)	17.9	22.3	36.0	33.3	16.4	21.0	19.6	21.0	22.9

주: 평년은 평년은 2011~2015년 5개년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5년 12월 HP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2016년 1월 또다시 HP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금지 조치됨.
- 태국산 냉동 닭고기는 현재 우리나라로의 수출 재개를 위한 현지 실사와 수입 위생조건 조율만이 남은 상태임. 국내 수입이 재개될 경우, 지리적 이점을 가진 태국산 닭고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증가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은 금년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여기에 닭고기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지가격 하락폭은 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닭고기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임.

2. 닭고기 수급 불균형 원인 검토

2.1. 닭고기 계열업체 경쟁 심화

- 기존 계열업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과정에 최근 들어 신규 업체 진입이 계속해서 발생함.
 - 2011년 (주)사조인티그레이션이 육계 계열화 사업에 신규 진입함. 사업 초기 시장점유율은 1.9%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 삼계 전문 생산업체를 인수·합병하여 (주)사조화인코리아로 사명 변경한 후 2015년 시장 점유율은 5.0%로 확대되었음.
 - 2013년 (주)참프레가 육계 계열화 사업에 신규 진입하여 4.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음. 2015년에는 진입 1년 만에 7.7%까지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업계 4위로 도약함.

주요 계열업체 도축장 도계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마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증감률
하림	159,347	164,014	158,269	177,747	187,654	4.2
올품	79,919	77,580	69,483	70,583	76,163	-1.2
참프레	-	-	33,620	65,906	74,591	96.0
동우	70,916	73,446	58,282	70,000	71,969	0.4
체리부로	54,423	62,081	62,749	62,713	74,154	8.0
마니커	73,448	68,547	42,689	50,303	55,585	-6.7
사조	14,143	21,226	28,372	46,249	48,276	35.9
성화식품	21,522	22,712	24,447	26,665	32,721	11.0
주요 업체 도계(A)	473,718	489,606	477,912	570,165	621,113	7.0
전체 도계(B)	759,610	787,958	791,155	885,324	966,965	6.2
A/B(%)	62.4	62.1	60.4	64.4	64.2	

주: 연평균 증감률은 2011~2014년 연평균 증감률(단, 참프레는 2013년부터)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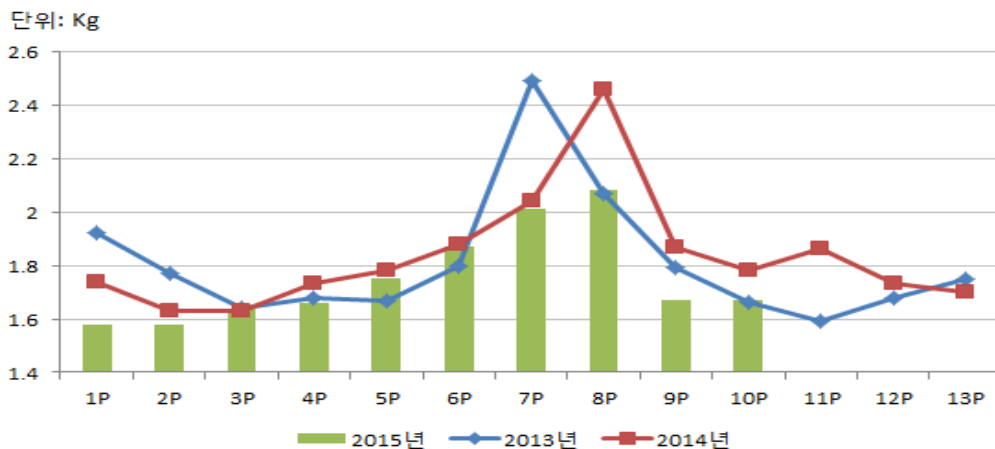
- 대규모 계열업체의 신규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점으로 국내 전체 도계 마릿수 중 주요 계열업체의 도계 마릿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4%에서 64.2%로 3.8%p 증가함.

- 2011~2014년 기간 동안 국내 도계 마릿수는 연평균 6.2%씩 증가하였으나, 계열업체가 소유하는 주요 8개 도축장 작업 물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7.0%를 기록했음. 따라서 대형 계열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계열업체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확대되면서 계열업체의 도계 작업 물량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국내 전체 도계 마릿수 증가로 연결되어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증가로 연결됨.

2.2. 닭고기 소비 정체 상태

- 2015년 40주차까지의 가구당 닭고기 구매량은 2013과 2014년의 1.85kg에서 5.6% 감소한 1.75kg에 머물렀음.
 - 이러한 닭고기 구매량 감소는 닭고기 성수기인 복경기(7~9P) 기간의 구매량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가구당 4주 평균 닭고기 구매량 추이



주: 1P는 4주를 의미함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닭고기 소비는 정체되어 있으나 생산량의 증가로 계열업체 냉동 비축물량이 전년보다 증가함. 2015년 말 기준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29.5% 증가한 1,241만 마리임.
- 냉동 비축물량 중 미절단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절단육은 전년보다 217.2% 증가하였으며, 삼계는 58.8%, 부분육은 24.4%가 증가하였음.

계열업체 냉동비축 현황

단위: 만 마리, %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15년	162	136	684	259	1,241
2014년	203	43	549	163	958
증감율	-20.2	217.2	24.4	58.8	29.5

자료: 한국육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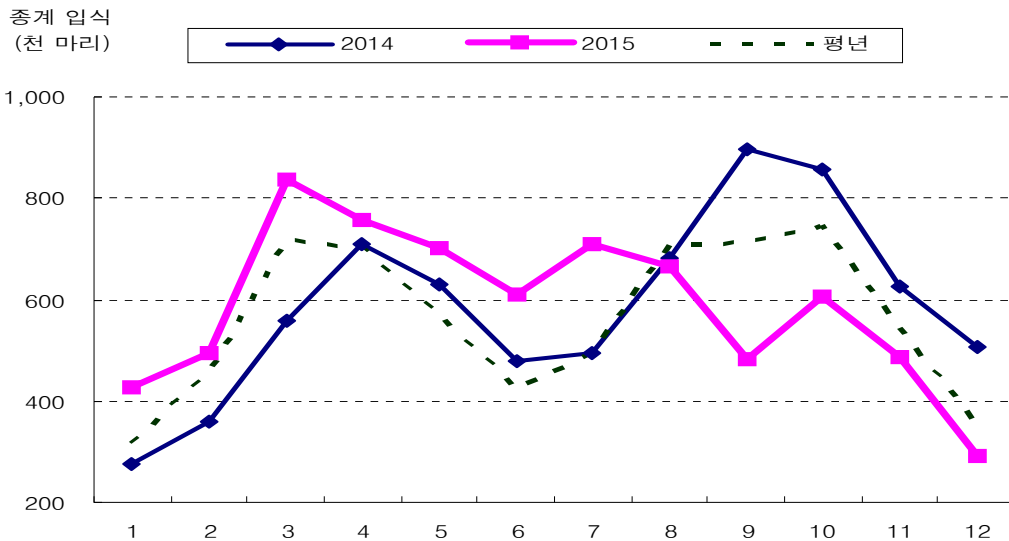
- 2016년에도 닭고기 소비가 증가할 요인은 없는 것으로 예상됨.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닭고기 소비 증진을 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닭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2.3. 종계 부족 우려로 업계의 단기간 종계 입식 급증

- 1980년대까지는 산란계 및 육용 원종계를 육성·보급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원종계 병아리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과거에 대형 계열화업체들이 원종계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종축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국내 육용 원종계 생산이 중단됨.

- 원종계(Grand Parents Stock: GPS)는 종계(Parents Stock: 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을 의미함. 원종계에서 부계와 모계를 각각 생산하고, 이들의 교배를 통하여 종계를 구성함. 종계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실용계(Commercial Chick: CC)를 생산함.
- 2014년 11월 영국의 HPAI 발생으로 영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15년 5월 6일 수입 재개되었음. 그러나 동년 7월 10일 랭커셔지방의 산란계 농장에서 HPAI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7월 14일 자로 수입금지 조치되어 현재까지 계속됨.
- 2014년 12월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HPAI가 발생하여 12월 20일자로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이 수입금지 조치됨. 이후 2015년 4월 5일 미네소타, 4월 23일 아이오와에서 HPAI가 추가 발생함. 2016년 1월 인디애나에서 또다시 HPAI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됨.
- 영국과 미국의 HPAI 발생으로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예정되었던 원종계 입식이 지연되었음. 또한 2015년 상반기에 입식된 원종계가 3만 7천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 따라서 업계는 2015년 하반기 종계 병아리 생산 감소가 더 확대되어 2015년 종계 병아리 총 공급량은 수요량의 66.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함. 그 결과 심각한 종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각 계열업체들의 2015년 상반기 종계 입식이 경쟁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함.
- 이 과정에서 종계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원종계 도태가 늦춰졌으며, 2015년 7~11월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신규로 50만 3천 마리의 종계가 직수입되었음.
- 업체들의 경쟁적인 상반기 종계 입식 증가와 종계 직수입 등으로 인해 2015년 종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700만 2천 마리였음. 평년(634만 3천)보다 4.6% 증가함.

2015년 육용 종계 입식 동향



자료: 대한양계협회

-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종계 입식 마릿수는 연간 약 650만 마리로 언급되나, 계열업체의 경쟁 심화로 인해 2013년 이후 매년 700만 마리 이상이 입식되어 구조적인 닭고기 공급 과잉이 발생함.

3. 수급 불균형에 따른 파급 영향

3.1. 계열업체 영업이익 급감

- 육계 계열업체 신규 진입 발생으로 업체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닭고기 소비량 수준을 넘어서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짐. 그 결과 계열업체의 닭고기 냉동재고량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2015년 3분기 기준 주요 상장 계열업체의 영업이익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계열업체 냉동비축 현황

단위: 만 마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분기
하림	1,142	-120	-226
동우	1,249	652	-172
마니커	-19	-899	-255

자료: 한국육계협회

3.2. 위탁 사육농가 피해 발생 설문 결과¹³⁾

- 계열업체 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닭고기 과잉생산으로 인해 육계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함. 이에 따른 계열업체의 영업이익 감소 피해 일부분을 위탁수수료 인하, 육계 출하 후 비품¹⁴⁾ 처리 비중 증가 등의 형태로 위탁사육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음.
- 농가 설문조사 결과, 농가가 위탁사육을 통해 계열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위탁수수료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하되었다는 답변이 많았음.
 - 설문 응답에 따르면 2012년(100)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5년 89.8로 10.2% 감소하였음.
 - 설문 응답자 중 67.9%가 과거보다 위탁수수료가 인하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수준 유지는 23.1%, 인상은 9.0%였음.

13) 이 조사결과는 농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14) 육계 비품은 농장에서 사육 중 질병 또는 피부손상 및 착색불량, 기형이거나 상처 과정 중 골절 또는 명에 의해 상품성이 저하된 도계육 제품을 의미함.

농가 위탁수수료 변화추이(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위탁수수료	100	95.6	92.5	89.8

자료: 농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 시설이 현대화되고 농가의 사양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비품 발생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의 비품처리 비중이 증가하여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음.
 - 설문조사 결과, 2012년(100)을 기준으로 비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12.6으로 응답되었음.
 - 설문 응답자 중 58.0%가 과거보다 비품 비중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는 29.0%, 기존 수준 유지는 13.0%로 조사됨.

비품비중 변화추이(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품비중	100	104.2	107.6	112.6

자료: 농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 2015년 농가 사육경비는 2012년에 비해 17.6% 증가하였으나 계열업체가 보수지급을 위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서 경비 증가분과 육계 출하 시 상차비용,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운송비 등을 농가에 부담시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문 응답이 있음.
 - 설문 응답자 중 56.2%가 과거보다 사육경비가 증가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감소는 27.4%, 기존 수준 유지는 16.4%로 조사됨.

사육경비 변화추이(지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육경비	100	105.7	109.7	117.6

자료: 농업관측센터 설문조사 결과

- 또한 위탁수수료 미지급, 병아리와 사료 품질 하락, 입추 지연, 사료 기준요구
을 인하, 출하 지연, 운송료 인상, 보상보험처리 미흡, 수당 미지급 등으로 많은
농가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문 응답이 있음.

4. 결론 및 시사점

4.1. 2016년 닭고기 공급과잉 지속 전망

- 014년부터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육계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하
락세는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음. 2016년 7월까지 도계 마릿수 증가세는 지
금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이나, 도계 마릿수는 2015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닭고기 공급 과잉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16년
북경기 도계 마릿수 감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종계 생산 연장 및 환
우를 피해야 하며,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함.

4.2.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 필요

- 일반 경종 농산물은 필요시 정부가 공급 과잉 물량을 구매하거나 폐기처분하여 인위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축산물은 구매 후 폐기와 같은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격리가 불가능하므로 시장 기구 내에서 자연적인 수급 조절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일반 계열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시장 기구 내에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업체들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통한 입식 및 사육 규모의 감축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협회 간, 계열업체 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는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의 상생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업체 등 수급조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도 협의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4.3.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기존의 소비홍보 광고가 주로 간접광고 방식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직접광고 방식으로 전환하고, 백색육의 차별적인 강점에 대한 중점적인 소비자 홍보가 필요함.
 - 닭고기 자조금사업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홍보비용을 확대, 집중 투입함으로써 소비촉진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국산 닭고기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통해 수입 냉동 닭고기에 대한 국내산 닭고기의 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발생 가능성 없애야 함.
 -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는 신제품 개발로 닭고기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4.4. 계열업체와 농가의 상생협력 노력과 제도적 보완 검토 필요

- 2013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축산계열화사업의 관한 법률」에 의해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가 마련되어있음. 그러나 분쟁 조정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사육농가협회의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고 계열화 사업자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계열화 업체와의 분쟁발생 시 농가협회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 중 57.8%가 농가협회의 구성에 계열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농가협회 활성화가 되지 않아 의견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또 다른 문제는 계열화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육농가협회의 구성에 대한 사육농가들의 인식이 낮아 적극적인 참여가 저조한 점임. 따라서 농가의 올바른 인식과 의식개혁을 통해 사육농가협회를 활성화하여 계열업체와의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설문조사 결과, 농가협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48.0%(49명)였으며, 조직 중이 10.8%(11명), 계획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2%(42명)였음.
 - 농가협회에의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4.6%가 평균 4.2회 참석했다고 답했으며, 회의가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5.4%였음.
- 사육농가협회를 대등한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기업 위주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나, 실질적 구속력이 없는 사육농가협회가 각 계열 주체별·지역별로 별도 구성되고 활동하면서 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 농가협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을 분명히 하고, 농가협회의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 계열업체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손실을 업체가 위탁사육 농가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크게 나타남. 따라서 농가의 불만 발생에 대한 정부와 계열업체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 및 대책수립이 필요함.

최근 소비자의 과일 구매행태 분석과 시사점*

박기환**, 신유선***

1. 서론

- 국내 경지면적은 2000년 189만 ha에서 2014년 169만 ha로 연평균 1%씩 감소하고 있음. 반면, 과일 재배면적은 2000년 17만 ha에서 2006년 15만 ha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4년에는 16만 ha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 경지면적에서 과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9%에서 2014년 9.6%로 확대되었음.
- 특히, 과일의 경우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국내 생산 증가세와 함께 수입과일도 늘어 과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58.4kg에서 2015년 66.8kg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수입과일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과일 소비량에서 수입과일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 국내산 과일의 소비 비중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과일의 소비 동향과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과일 수요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과일 재배농가가 확대되는 수입과일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고는 「농업전망 2016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kihwan@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shinys@krei.re.kr)

2. 주요 과일의 소비 동향

2.1. 전체 과일류 소비 현황

- 과일 전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0년 58.4kg에서 2010년 62.4kg, 2015년에는 66.8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과일 소비량 가운데 국내산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 내외로 높지만, 2000년 87%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반면, 수입과일의 소비 비중은 2000년 13%에서 2010년 24%, 2015년에는 26%로 증가하고 있음.

과일 전체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

		2000	2005	2010	2015
과일 전체 소비량		58.4	62.6	62.4	66.8
	국내산 과일 비중	87.0	82.0	76.2	74.0
	수입과일 비중	13.0	18.0	23.8	26.0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00~2014), 농업관측센터 추정치(2015)

- 이와 같이 국내산 과일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과일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량은 2000년 31만 9천 톤에서 2015년 68만 6천 톤으로 115% 증가하였음.
- 특히, 포도의 경우 2004년 한·칠레 FTA 뿐만 아니라 2011년 한·페루 FTA, 2014년에는 한·호주 FTA 발효로 수입국이 다양화되는 등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 때문에 포도 소비량에서 수입포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1%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주요 신선과일 수입 추이

단위: 톤

	2000	2005	2010	2015
수입과일 전체	318,874	476,655	592,420	686,398
오렌지	99,017	123,048	110,055	111,569
포도	7,921	13,353	34,963	66,192
바나나	184,213	253,974	337,907	358,249
파인애플	21,790	48,763	60,565	67,003
망고	421	762	1,351	13,315
키위	5,228	26,751	28,515	23,800
체리	194	987	3,800	12,451
석류	81	7,485	7,402	8,810
자몽	1,813	1,532	7,861	25,010

주: 석류는 기타 코드(0810.90.9000)에서 베트남 수입량(용과)을 제외하고 집계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2000~2015).

2.2. 주요 품목별 소비 추이

- 사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9년 9.9kg까지 증가하다 2011년 7.6kg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2015년에는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소비량은 11.4kg으로 15년 만에 10kg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배의 소비량은 2008년 9.2kg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2015년 4.7kg으로 급감하였음. 감귤은 2007년 16kg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생산량이 안정화되면서 2011년부터 14kg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포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도 생산량이 줄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6.5kg으로 추정됨. 단감의 경우 2005년 4.8kg 이후 생산이 위축되면서 2015년 3.4kg까지 감소한 상황임.

- 복숭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0년과 2013년의 동해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4kg 이상의 소비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배면적 확대에 의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6대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2000	2005	2010	2015
사과	10.4	7.5	9.3	11.4
배	6.7	8.6	5.8	4.7
감귤	11.9	13.1	12.5	13.4
포도	10.3	8.2	6.9	6.5
단감	4.8	4.8	3.6	3.4
복숭아	3.6	4.6	2.8	6.5

주: 1인당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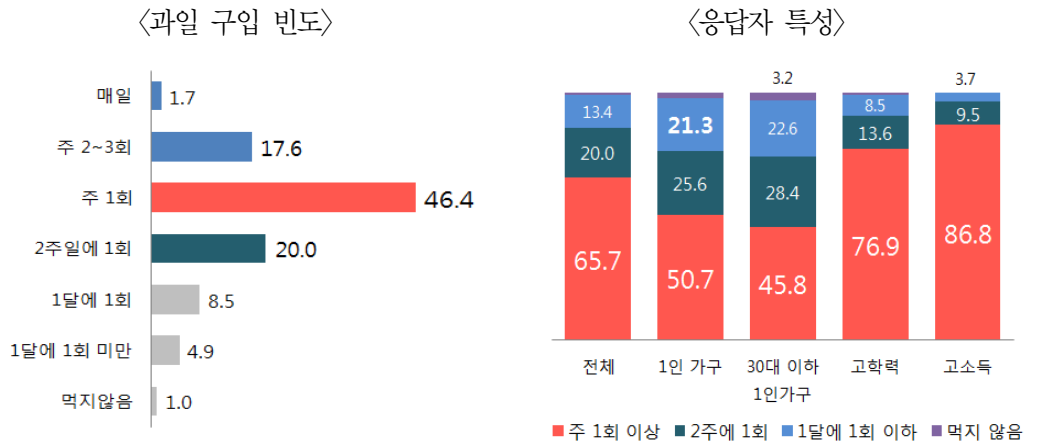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00~2014), 농업관측센터 추정치(2015)

3. 최근 소비자의 과일 구매행태 분석

3.1. 과일류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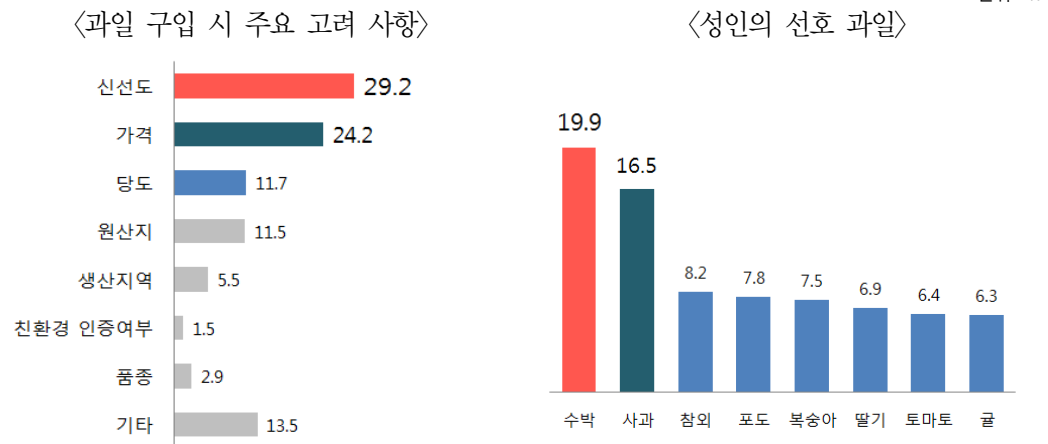
- 201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과일 구입 빈도는 주 1회가 46%로 가장 많고, 응답자의 66%는 주 1회 이상 과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 1회 이상 과일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1인 가구에서는 한 달에 1회 이하로 과일을 구입하는 경우가 2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과일 구입 시 소비자가 고려하는 사항은 신선도(29%), 가격(24%), 당도(12%) 순이며, 성인이 선호하는 과일은 수박(20%)과 사과(17%), 참외(8%) 등으로 조사되었음.

과일 구입 주기



자료: 최종우,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 행태, 201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2015

과일 구입 시 주요 고려 사항



자료: 최종우, 가구 내 식품 구입 및 소비 행태, 201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2015

3.2. 주요 품목별 구매행태

3.2.1. 사과

- 가정 소비용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과 크기는 ‘중과’(80%)인 반면, 제수용과 선물용은 ‘대과’(각각 79%, 70%)로 나타나 2014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가정 소비용으로 ‘소과’를 선호하는 소비자 비중은 전년의 9%에서 2015년에는 14%로 5%p 상승하여 사과의 가정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소과 품종의 재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비자의 용도별 사과 선호 크기

단위: %

	2014년 조사치			2015년 조사치		
	가정용	제수용	선물용	가정용	제수용	선물용
소과	8.7	0.5	0.2	13.9	0.5	0.2
중과	81.9	22.2	31.0	80.4	20.5	29.6
대과	9.4	77.3	68.8	5.7	79.0	70.2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타 신품종 사과로는 국내 육성 품종인 아리수와 외래 도입 품종인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 엔비, 속 빨간 사과(레드러브) 등이 있음.
- 이들 신품종 사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미니 사과(알프스오토메)가 73%로 가장 높고, 엔비 사과 16%, 속 빨간 사과는 8%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향후 구입 의향이 있는 소비자 비중은 80% 내외로 상당히 높아 시장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 품종의 재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소비자의 신제품 사과 구입 의향

단위: %

		미니 사과 (알프스오토메)	속 빨간 사과 (레드러브)	엔비 사과
인지 여부	예	72.8	8.1	15.6
	아니오	27.2	91.9	84.4
구입 의향	예	78.8	79.3	82.7
	아니오	21.2	20.7	17.3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3.2.2. 배

- 배 구입 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품질은 ‘당도’가 전체 응답의 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정 소비용이나 선물용에 적합한 크기’(13%), ‘경도’(10%) 등의 순임.

소비자의 배 구입시 고려사항

단위: %

	비율
당도(단맛)	69.4
경도(단단함)	9.8
꼭지 부분이 매끈한지 여부	0.5
겉표면에 반점 등이 없는지 여부	7.2
가정소비용이나 선물용에 적합한 크기	12.6
기타	0.5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 소비자가 선호하는 용도별 배의 크기는 제수용과 선물용의 경우 대과 선호 비중이 각각 80%, 73%로 가장 높지만, 가정 소비용으로는 중과의 비중이 74%로 가장 높았음. 특히, 가정 소비용으로 중·소과 크기의 배를 선호하는 소비자 비중은 2014년 74%에서 2015년 79%로 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소비자의 용도별 배 선호 크기

단위: %

	2014년 조사치			2015년 조사치		
	가정용	제수용	선물용	가정용	제수용	선물용
소과	4.3	—	0.2	5.6	0.3	0.2
중과	70.1	18.4	22.9	73.6	17.8	26.0
대과	25.6	81.6	76.9	20.8	81.9	73.8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3.2.3. 감귤

-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감귤 품종은 온주밀감이 64%로 가장 높았고, 한라봉과 천혜향은 각각 21%, 13%, 레드향은 2%로 조사되었음. 한편, 온주밀감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38%로 실제 구입 비중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의 경우는 실제 구입 비중보다 선호도가 높아 향후 만감류에 대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의 감귤 구입 및 선호 품종

단위: %

	구입 품종	선호 품종
온주밀감	64.4	37.7
한라봉	21.4	29.7
천혜향	12.6	26.5
레드향	6.1	6.1

주: 구입 및 선호 품종의 비중은 1순위와 2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값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 소비자의 과반 이상인 56%는 쉽게 물러져 보관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감귤 소비확대의 주요한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다음이 동일한 크기임에도 당도 등 맛 차이가 심한 것(26%) 등으로 나타났음. 특히, 구입한 감귤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이후에 구입량을 줄이거나(51%) 아예 구입하지 않는다는(5%) 소비자가 56%로 과반 이상이었음.

감귤 소비 확대 저해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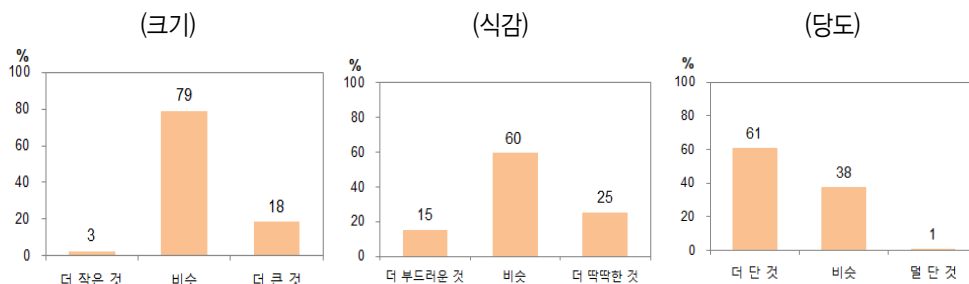
	비율
쉽게 물러져 보관기간이 길지 않음	55.8
같은 크기인데도 당도 등 맛 차이가 큼	26.3
구입한 박스의 감귤 크기 차이가 심함	3.6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없음	9.7
품질이 상당히 낮은 감귤이 불법 유통	4.1
기타	0.5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3.2.4. 단감

- 단감의 경우 선물 등을 받아 단감을 섭취하는(15%) 소비자보다는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78%로 상당히 높으며, 명절 때 제수용으로 사용한 후 먹는다는 소비자는 5%에 불과하였음.
- 소비자는 단감의 크기가 현재와 비슷(79%)하거나 더 큰 것(18%)을 선호하며, 식감은 부드러운 단감(15%)보다 더 딱딱한 것(25%)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당도의 경우 더욱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 비중이 61%로 가장 높았음.

소비자의 단감 품질개선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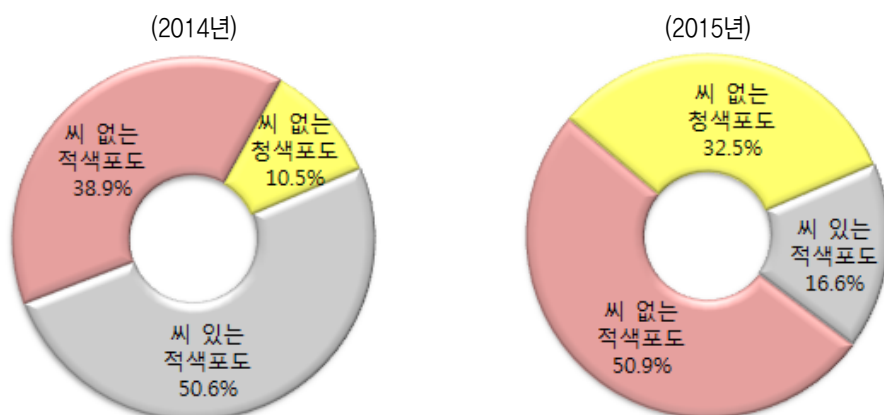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3.2.5. 포도

-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 품종은 전년 조사에서 ‘씨 있는 적색포도’가 51%이었으나, 2015년에는 17%로 34%p나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반면, ‘씨 없는 적색포도’의 선호도는 2014년 39%에서 2015년 51%로 12%p 상승하였으며, ‘씨 없는 청색포도’는 같은 기간 11%에서 33%로 22%p나 높아졌음.

소비자의 포도 선호 품종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 수입포도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58%는 수입포도가 국내산보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3%의 소비자는 국내산과 가격과 품질, 안전성 모두 비슷하다고 느끼고 있음. 즉, 수입포도가 매년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거부감이 이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입산 포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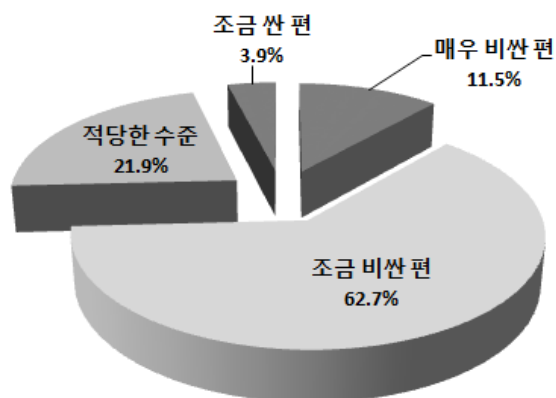
단위: %	
	비율
국내산 포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고, 어느 정도 안전성도 보장됨	12.7
국내산 포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지만,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함	45.7
국내산 포도와 가격, 품질, 안전성 모두 비슷함	12.7
국내산 포도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안전성도 보장되지 못함	20.0
국내산 포도보다 가격, 품질, 안전성 모두 떨어짐	8.9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3.2.6. 복숭아

- 복숭아 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하락하였음. 이에 대한 소비자의 복숭아 가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전체의 63%로 높아 복숭아 가격은 아직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의 복숭아 가격 체감도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 국내 복숭아가 망고 등과 같은 수입과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장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비중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당도 향상(38%) 등으로 조사되었음.

복숭아 경쟁력 향상 부분

단위: %

	비중
현재보다 당도 향상	38.3
저장기간 연장	39.0
새로운 상품 개발(망고 빙수 등)	10.6
신품종 개발(알레르기 방지)	10.1
기타	2.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결과(2015.12.30~2016.1.5, 611명)

- 한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복숭아를 좋아하는 구성원은 ‘주부’(44%), ‘자녀’(29%), ‘배우자’(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부와 청소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도 요구됨.

4. 시사점

4.1.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크기의 품종 선택

-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는 가정 소비용으로 사과와 배를 구입할 경우 ‘중·소과’ 크기를 선호하고 있어 가정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과 품종의 재배 확대가 필요함.
- 반면, 단감은 현재와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큰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 좀 더 큰 대과 품종의 재배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4.2. 고당도 품종 개발·보급

- 과일 구입 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품질은 당도(배 69%, 단감 61%, 복숭아 38%, 감귤 26%)가 높게 나타났음. 소비자는 현재보다 더욱 단맛의 단감을 선호하며, 복숭아는 망고 등과 같은 수입과일과 경쟁하기 위해 당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감귤은 같은 크기인데도 당도 등 맛 차이가 크다는 것이 소비 확대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향후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여 고당도 품종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할 것임.

4.3. 신품종 갱신

- 수입포도의 영향으로 ‘씨 없는 포도’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매년 수입포도 비중이 늘면서 수입포도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국내산 포도가 수입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 및 안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여 ‘씨 없는 포도(예를 들어 씨 없는 청포도 샤인마스켓)’와 같은 신품종 갱신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4.4. 저장기간 연장

- 감귤 소비는 대체로 꾸준하며, 복숭아 소비도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오렌지와 망고 등과 같은 수입과일이 늘면서 향후 이들 품목의 소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소비자는 감귤과 복숭아의 소비 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쉽게 물러져 보관기간이 길지 않음(감귤 56%, 복숭아 39%)’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감귤과 복숭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품종 및 기술 개발이 요구됨.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2015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전망 2016.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